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보스톤 대표팀 체전서 뜻밖의 선전

미주체육대회 보스톤 대표 26명 참가
육상, 태권도, 탁구 분야서 6개 메달
금메달 없이 은메달 3, 동메달 3 획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17년 미주한인체육대회에서 보스톤 대표선수단이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달라스에서 개최된 올해 체육대회(이하 미주체전)에는 보스톤 한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야구, 탁구, 태권도, 골프, 육상 등 5종목에 총 2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선수단은 육상 여자 400미터에서 은메달을, 100미터에서는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또한 태권도 여자 품세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탁구에서는 단식과 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육상에서는 단 1명의 여자 선수가 출발 당일 합류해 2개의 메달을 안기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에서 입양된 에밀리 제갈(Emily Jeagal, 24)씨는 100미터에서는 동메달을, 400미터에서는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해 선수단의 사기를 높였



미주한인체육대회에서 이지영, 이지성, 이지수(사진 좌측부터) 세자매가 출전해 2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은 코치 홍순우 사범과 함께 촬영했다

다. 에밀리는 당초 선수단으로 합류한 것이 아니라 텍사스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야구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방문했었다. 육상이 아닌 축구를 하고 있는 에밀리는 경기 당일 육상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가했는데 뜻밖의

수확을 안기게 됐다. 에밀리는 한인만 참가할 수 있는 특별한 경기라는 점에 매력을 가졌고 한국사람으로서 처음 한인들만의 경기에 처음 참여해 메달을 따는 추억을 갖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탁

보스톤코리아 정기 휴간 안내
2017년 7월 7일자 신문 정기 휴간합니다

베이커주지사, 상원안으로 26만 4천명 무보험자 전략

가장 큰 타격은 매사추세츠 최저 빈곤층들이 될 것. 빈곤층에 지출 줄여 부유층에 세금감면이 보험안 골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26일 미 상원 공화당 건강보험 상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 주는 2025년까지 82억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264,000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주 연방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료보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은 최저 소득층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상원안은 주 정부의 연방보조금을 점차 고갈케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잃고 심지어 건강보험 시장마저 교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7월 >>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출발 **한국행항공권 \$870~**부터

미서부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 4박5일 \$465~ 미서부3대개항 4박5일 \$470~	고국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서남권 3박4일 \$609~ 중동권 3박4일 \$609~
미동부관광 (뉴욕 포함) 워싱턴 / 나이아가라 리뉴욕시내 4박5일 \$680~ 미동부&캐나다 4박5일 \$800~	선국일주 8박9일 (시애틀 포함) \$1,388~

IACE TRAVEL 부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대표원장
Dr. Chang Yoon, DPT
브룩라인(하나병원) 원장
Dr. Miran Kwon, DPT

교통사고/학생보험/닥터노트/여행자보험
울스톤 크리닉
617.731.1001
브룩라인 크리닉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2017 제26차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성황리에 개최

미 전국 150여명 동문 참가, 안보강연, 공로패 및 장학금 시상
윤상래 회장 “서울대 뿐 아니라 전체 한인 권익 위해 힘쓰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6월 23일부터 이틀간 우편의 ‘힐튼호텔 우편’에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가 열렸다. 각 지역에서 대표로 참석한 68명의 평의원들과 임원, 가족들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동문들간의 우애와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두 번의 특강이 있었다. 23일 열린 전야제에서는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의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안보’, 이튿날 열린 만찬에서는 다트머스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제니퍼 린드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이춘근 교수는 “북한의 전력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국제정세는 항상 변화해 왔다”면서 “만약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한국정부가 전술핵을 준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튿날 열린 만찬에는 손재욱 미주 직전 동창회장, 윤상래 신임 미주 동창회장, 정태영 뉴잉글랜드 지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모교 총동창회 변주선 부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성낙인 서울대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시상식 순서에서는 김병연(남가주), 정태영(뉴잉글랜드),

임희례(북가주), 최정웅(필라델피아), 김도명(뉴욕), 정승규(시카고), 안선미(D.C), 이견일(의대총동창회장) 등 미국 내 여러 지역 지부장들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학술상에는 윤도명, 이강원, 봉사상에는 정해민, 정정욱, 참여상에는 김문소 동문이 수상하였다. 한편 첫날 평의원회의에서 이루어진 차차기 회장의 선출에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신용남 씨가 접전 끝에 2표차로 당선되는 등 각 지부의 열띤 응원이 있었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은 신임 임원소개와 아울러 앞으로 손쉽게 회원들이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QR코드 사용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QR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동창회 회보도 손쉽게 펼쳐볼 수 있는 편리함을 갖췄다.

윤 회장은 “서울대 동문회가 서울대 동문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 전체 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싶다”면서 “전임 동문회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열릴 2018년도 평의원회의는 2018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변주선 총동창회 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미국 각 지역의 지부장들이 공로패를 받고있다



손재욱 직전회장으로부터 윤상래 신임회장에게 미주동창회기를 전달하는 모습



미주동창회 차차기회장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열띤 차차기회장 투표모습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8일 보스턴 소재 JFK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28일 보스턴서 연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8일 보스턴 소재 JFK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설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 방미 일정 첫날을 소화했다. JFK 박물관 측은 수요일 CNN 수석 정치분석가이자 하버드케네디스쿨 공공리더십센터 공동디렉터인 데이비드 저겐의 사회로 열리는 포럼에 반전 총장에 참여해 글로벌 이슈 및 자신의 외교관 경력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총장은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으며 재임기간 중 기후변화,

양성평등, 빈곤 등의 이슈에 집중했다. 반 전총장은 유엔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도 추진했다.

지난 1월 한국에 귀국해 대선 주자로서 간략하게 활동했으나 약 1개월만에 후보에서 사퇴하고 현재 케네디스쿨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 내각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반기문 총장이 모종의 역할을 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정기총회 갖고 장학금 수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2017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6월 24일 우번 소재 힐튼호텔에서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와 동시에 개최했다. 이는 보스턴에서 열리는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지역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정태영 회장은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제성 재무의 결산보고와 박영철 차기회장

의 간략한 사업계획 소개에 이어 김선혁 차기 감사의 인준이 있었다.

한편, 뉴잉글랜드 장학생 발표와 수여식이 6월 23일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의 전야제에서 진행되었다. 올 장학생으로는 사라박양(렉싱턴 고교졸), 다니엘서군 (UMass-Amherst 재학), 서윤정양(랄프마하 리저널 고교 졸업) 등 3명이 선발되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7년 6월 24일에 열린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결산보고 모습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원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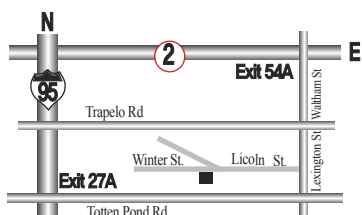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화재 올스톤 북경 4개월 만에 다시 오픈

7월 7일 금요일 재 오픈예정, “이번에는 확실히 하다”
건물주의 미온적인 태도, 복잡한 행정 4개월 소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스톤 소재 중화요리 전문점 ‘북경’ 이 화재로 영업을 중단한지 4개월 여만에 다시 문을 연다.

올해 3월 10일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북경은 7월 7일 금요일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3월 화재는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북경 이승기 대표의 신고로 바로 진화됐었다. 지하실 일부만 화마를 입어 실제적으로 북경 등에는 가시적인 화재피해가 없었다.

실제로 같은 건물에 있는 명동과 레퓨지 카페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업재개에 들어가 정상영업을 진행해 왔다.

화재의 발생원인은 전기 과부하로 발생한 것으로 건물주의 보험으로 해결할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북경 이 대표는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보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자주 건물을 관리하는 동생에게만 연락하러면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고 하소연 했다.

건물주가 전기 전문가를 고용해 화재로 타버린 거푸집 등을 모두 수리를 하고 나서 보스톤 시청의 전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통과하자 이번에는 전기회사인 에버소스

(Eversource)가 문제였다.

에버소스는 “검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화할 때마다 다른 직원이 받아 같은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이 대표는 아예 직접 시 전기 감독관을 찾아가 에버소스와 직접통화하도록 했다.

커네티컷에 소재한 에버소스 본사와 보스톤 에버소스와 커뮤니케이션도 순조롭지 않았다. 두 곳을 모두 연락해 마침내 기술자가 지난 28일 북경을 방문했다. 최종적으로 7월 5일 전기공사를 마치고로 했다.

북경 이승기 대표는 “미국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이 단 한 달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무려 4개월이나 걸리게 했다” 고 말하며 “그나마 시 당국의 감독관들의 도움이 컸다” 고 밝혔다.

북경은 화재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하자 일부 한인사회 내에서는 여러가지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음 주부터는 보스톤에서 짜장면을 다시 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북경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북경(617-254-2775)에 전화문의할 것을 권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올스톤 소재 중화요리 전문점 북경이 화재로 영업을 중단한지 4개월여만에 다시 문을 연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더울땀 시원하게
'에너지 업!' 하세요.**

여름철
기력회복엔
역시 홍삼이
좋습니다.

- ✓기력회복
- ✓면역력증진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유농후, 홍삼 농축액 100% 에너지 업!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곁까지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8월 워싱턴 DC에서 한미학술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제 46대 회장단이 6월 17일 버지니아주 비엔나 소재 KSEA 본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서은숙 호"의 출항을 알렸다. 46년 협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단이다.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 46대 회장단은 8월 9일-12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학술대회인 UKC 2017을 개최한다.

KSEA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김명자 회장, KOFST), 한미과학 협력 센터(조 무제 이사장, KUSCO)가 공동주최하는 UKC 2017은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1,000명 이상의 과학기술자, 기업가, 정책결정자, 과학기술전공 학생들이 모여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협력을 통한 융합과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대회 기조연설자는 200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매더(John C. Mather) 나사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선임 천체물리학자이며, 매더 박사는 기조강연 후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포럼에서도 강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체리 머레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임원진들

이(Cherry A. Murray) 하버드대 기술, 공공정책, 물리학 교수와 박흥근 하버드대 화학, 화학생물학, 물리학 교수가 기조세션에서 강연한다.

물리, 수학/통계, 화학, 컴퓨터정보, 전기전자, 바이오, 의료, 제약, 의공 등 12의 심포지엄과 13개의 융합 세션이 열리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정책 포럼, 미세먼지 포럼, 신약 개발 및 승인 포럼, 과학 외교 포럼 등 최근 글로벌 화두로 거론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관 포럼, 청년과학기술자 포럼, 여성과학기술자 포럼, 지적재산권 포럼, 포스터 발표, 해외과학인상 수여, 그랜트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한국과학기술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과학기술리더쉽 캠프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일

주일 동안 진행된다.

1971년 워싱턴 DC에서 한인 유학생 69명으로 창설된 재미과학기술자협회는 46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초창기 한인 1세대에 이어 이제는 1.5세, 2세 한인과학기술자 회원들로 폭을 넓혀 가고 있다. KSEA 신임 회장인 서은숙 메릴랜드대 물리학과 교수는 2004년부터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과 함께 남극 하늘에 초대형 풍선을 띄워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선을 측정하는 '크림(CREAM•Cosmic Ray Energetics And Mass)'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다.

▷존 매더 2006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공개포럼 참석 신청: <http://ukc.ksea.org>

bostonkorean@hotmail.com

글로벌 시대의 재미한인, 현재와 미래 조망

『세계한인학술대회』 북미 지역세션... 3개분과 17명 패널 『학술 분과』, 초국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재미한인사회 『NPO 분과』, 재미한인들의 조직적 대응과 활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과 재외한인학회가 주최하고 성공관대 동아시아학술원, UCLA 아시아 아메리칸학 센터, 캘리포니아주립대(도밍게스 힐즈), 아시아 태평양양학 프로그램 등이 주관하는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 북미 지역 세션이 "글로벌 시대의 재미한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연구자와 활동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며, 전 세계 17개국 150여명의 동포 연구자, NPO 활동가들이 기획세션과 지역세션에 각각 참석한다. 북미 지역세션은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28일 오후 학술분과, 29일 오전 NPO 분과로 진행된다.

북미세션에서는 21세기 들어 가속화된 글로벌 및 지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개되는 재미한인의 삶과 당면 과제들을 살펴본다. 재미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재미한인의 범주와 정체성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논의, 한

인 디아스포라에서 재미한인의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의와 토론이 심도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학술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재미한인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초국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재미한인들의 위상 변화와 새로운 문화적, 정치적 실천 양상을 논의하고, 이러한 변화가 북미 지역사회와 재미한인들의 생애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발표한다. 비정치기구(NPO) 세션에서는 "한인단체의 조직과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현재 재미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한인사회의 당면 문제와 개인적, 집단적 대응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28일 학술 분과 1에서는 한류 및 디지털화가 젊은 한인들과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초국적 이주로서의 해외입양에 대해 김대영(조지메이슨대), 김 박 넬슨(미네소타주립대), 박정선(캘리포니아주립대, 도밍게스 힐즈) 교수가 발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보스톤팀 은메달 3, 동메달 3 뜻밖의 선전

▶▶ 1면에 이어서

구 종목에서는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디펜딩 챔피언인 이진원 탁구협회 전 회장은 아쉽게 3위에 그쳤지만 김병우 선수와 이룬 복식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해 아쉬움을 달렸다.

태권도에서는 단 4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중 2명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선수 여자부에 출전한 이지수 (Jessica Lee, 19), 이지영 (Alisha Lee, 14) 이지성 (Erica Lee, 14) 선수 3명은 모두 자매들이다. 메달은 이지수, 이지성 자매가 일반부 유급자급과 중등부 유급자급에서 각각 따냈다. 쌍둥이 지영과 지성 중 유단자인 지영은 아쉽게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3자매의 아버지 이창국 씨는 형님인 이재국 씨와 함께 골프대표로 참가했다. 보스톤 체육회 이학재 회장은 “한 가족이 골프와 태권도팀으로 출전해 의미를 더했다” 고 밝혔다.

보스톤 생활스포츠 중 가장 꾸준한 리그 활동을 하고 있는 보스톤 야구팀은 올해에도 2패로 탈락했다. 이번에 거룬 두 팀 모두 대도시인 달라스와 애틀란타 팀이어서 열세가 예상됐지만 첫번째 상대였던 달라스에는 9대 7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애틀란타에게는 22-3으로 참패, 야구팀의 최소 1승 목표는 2017년으로 미루게 됐다.

이번 보스톤팀의 성적은 뜻밖의 선전으로 평가된다. 참가선수 26명에 메달 6개의 성적은 나무랄데 없다. 특히 올해 2월 보스톤체육회의 회장직을 인수인계 받은 이학재 회장(45)은 빈손에서 출발해 부랴부랴 달라스 대회 보스톤 대표팀을 꾸렸었다.

한편 재미대한체육회가 22일 공개한 미주체전 최종 종합순위에 따르면 1위 달라스, 2위 휴스턴, 3위 LA, 4위 오렌지카운티, 5위 뉴욕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폐막식 당일 1위 달라스, 2위 LA, 3위 뉴욕 등으로 발표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뉴욕대한체육회측은 불공정 집계라고 조직 위인 재미대한체육회를 공격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판정시비, 참가자 시비, 불공정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을 연출해 운영미숙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했다.

editor@bostonkorea.com



선수단이 공항에서 단체로 촬영한 사진



세 딸과 함께 아버지가 대회에 출전해 선두를 이끌고 있다



보스톤 선수단 중 모자를 쓰고 있는 아버지 이창국 씨, 김영훈(사진 가운데)



400m 결승에서 2위로 골인하고 있는 에밀리 양



보스톤 야구 대표팀



대회 개최식 모습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의회예산국, 상원안 2026년까지 2천2백만 무보험자 양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상원의 건강보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의회예산국(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향후 10여년간 2천2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26일 밝혔다. 이는 하원안에 비해 1백만명이 적은 숫자다.

의회 중립기구인 의회예산은 상원 여당 원내총무인 미치 맥코넬과 보좌관들에 의해 비밀리에 만들어진 상원안은 2026년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3천2백10억달러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원안은 1천1백90억 달러였다.

미치 맥코넬(캔터키)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독립기념일 전에 건강보험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꼭 필요하는 것이 의회예산국의 예산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상원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중도 및 보수 양쪽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중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상원안인 베타케어액트(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가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한 후 지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안을 칭찬하던 것에서 선회해 상원에 미국인들에게 조금 더 관대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일요일 대통령은 팍스 티비에 출연해 상원들과 점심을 같이하면서 하원안은 “매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정치적 의제에 대해 중립적인 분석을 제기하는 중요한 기구로 간주되어 왔다.



상원의 건강보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의회예산국(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향후 10여년간 2천2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26일 밝혔다

현재 국장 키이스 홀은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했던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2년 전 공화당 의회가 지명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수석보좌관들은 반복적으로 의회예산국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백악관 대변인 스페이서는 3월 의회예산국이 공화당 하원의 건강보험 예비안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했다. “CBO에서 정확성을 바란다면 잘못된 곳을 찾은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5월 간신히 하원을 통과한 미 건강보험법안(AHCA)과 상원안은 오바마케어의 폐지라는 핵심적인 목표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이 양 법안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고 각각 나름의 탈퇴 방지안을 장착하고 있다. 하원안은 미보험자가 가입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지안을 택했으며 상원은 미 보험자가 가입시 6개월간 가입

보유시간을 두는 방법으로 방지안을 선택했다.

이 두 건강법안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오바마케어 보험시장을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다수에게 주어지는 연방 정부 보조금을 대체한다.

법안이 통과된 2년 후 두 법안은 오바마케어 중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해 있는 약 7백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만들기 위해 부과됐던 케달락 세금 등 부자들과 보험회사에 부과됐던 세금을 폐지한다.

상원안은 오바마케어 하에서의 메디케이드 확장안을 2020년까지 유지한다. 그 후 3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31개주에 1천 1백만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지불됐던 메디케이드 정부 보조금을 거의 중단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베이커, 상원안 매스주 26만 4천명 건강보험 잃어

▶▶1면에 이어서

4일 휴회 전인 이번주 하원 안과 유사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상, 하원 안 모두 연방정부가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줄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베이커 주지사는 그동안 공화당이 제시하는 건강보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적인 성취였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들은 오바마케어가 개인들에게 의무화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화당은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새로운 공화당 법안이 주 정부에 예산 적자를 안겨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내에서 첫 번째로 전 주민 건강보험안을 통과시켰던 점을 상기시키며 주별로 좀더 유연하게 건강보험안을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지사는 상원안이 2020년부터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2020년 매사추세츠 주는 9억70만달러, 2024년에는 17억달러에 달하는 정보부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은 상원안이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간 2천2백만명이 무보험자로 내몰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건강보험 "깜짝 놀랄 소식" 생길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8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상원 건강보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은 최소한 “아주 근접해 있거나” 아마도 “(50표 획득)선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상원에서 공화당은 52석으로 50석 확보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필리버스터 방지가 가능한 60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산관련 법안인 경우 조정절차(Reconciliation Process) 하에서 과반수만 확보해도 통과가 가능하다.

공화당 내에선 강성보수와 중도

성향인 수잔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딘 헬러(네바다)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6명의 반대표에 부딪치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진행기로 했던 상원 표결을 지지 의석 수 확보 미달로 연기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맥코넬 상원의원은 상원 건강보험 수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의회 예산국(CBO)에 전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 같은 맥코넬 의원의 방침 발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미국방부, 시민권 약속 군입대 대기 이민자 추방고려

모집된 대기자 중 약 1,000여명 비자 만료 불체자로 전략
국방부 내부 메모, 계약 파기에 무게, 추방 위기에 놓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군입대 시민권 획득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이 현재 중단상태며 훈련 대기자 중 상당수가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이민자로서 미군에 합류해 정해진 훈련과정을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았던 매브니(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에는 약 1800여명이 모집되어 훈련 대기상태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입수한 메모를 바탕으로 27일 이 중 약 1,000여명의 비자가 만료되어 불체신분으로 전략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4,100명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강력한 신분 조화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메모를 인용해 밝혔다. 이 메모는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2009년 의료전문분야와 외국어능력자 분야의 모집을 증대시키기 위해 군입대하는 경우 신속하게 시민권을 발급해주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국방부의 프로그램 팩시트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기에 비시민권자들의 희생에 대해 조속한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보장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모집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안보 신분조회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이미 뼈대한 국방부

재정과 인력을 더 고갈시키고 있다고 국방부 내부 메모는 지적했다. 이 메모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 조니 마이클은 이 메모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요건강화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7일 캠페인 당시 한 여성의 질문에 군대에서 근무하는 불체자들은 미국내 체류가 허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팩스 뉴스의 4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료인 마이클 캐긴스 중령은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 육군 모집사령부의 6월 16일자 버츄얼타운홀미팅에서 진행자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현재 확실한 것은 매브니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것이다.”고 말하고 “안보강화 요건으로 인해 1,800명의 모집 훈련 대기자들에게 대한 안보강화 요건에 대한 신분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며 오래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계속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 됐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찰스강 수영 이벤트시티 플래시를 주관하는 시민단체 '찰스강 관리단'은 관계당국에 찰스강에 영구적인 수영시설 건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thechales.org)

더티워터는 옛말, 찰스강에서 수영 할 수 있을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찰스 강은 더럽지만 나는 보스톤을 사랑해”. 레드삭스가 승리할 때마다 펜웨이 파크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40년간 찰스강의 수질이 큰 폭으로 회복되고, 시민단체로부터 찰스강에 수영 시설을 건설을 요구받으면서 수영장 건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여름 찰스강에서 수영 이벤트 ‘시티 스플래시(City Splash)’를 개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찰스강 관리단’은 찰스강에 영구적인 수영시설을 걸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단체는 노스포인트 파크 지역에 수영시설을 지을 것을 제안하며 작년에는 2만 5천 달러의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보스톤 시 환경과 대변인 트로이 윌은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작년 여름 밝힌 바 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도 작년 ‘시티 스플래시’ 행사에서 “수영장 건립에 대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찰스 강은 보스톤의 보물 중

하나”라며 수영장 건립을 위한 수질 개선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찰스강은 오랫동안 더럽다는 악명을 떨쳐왔다. 60년대 중반까지 낮은 강수량과,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로 인해 찰스 강에서는 악취가 일상적으로 발생했었다. 60년대 활동했던 밴드 ‘스탄델스’의 대표곡 ‘더티워터(Dirty Water, 1966년작)’에서는 “찰스강은 더럽지만 사랑해, 보스톤은 나의 집이야”라는 가사가 쓰일 정도였다. 레드삭스가 승리할 때마다 펜웨이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로 찰스 강은 더럽다는 인식을 오랫동안 남겨왔다.

그러나 1972년 클린 워터법이 통과되면서 찰스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찰스강 상류에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산업 오염수 배출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찰스강의 수질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 환경 보호청은 찰스강 계획(Charles River Initiative)을 만들어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현재의 모습을 되찾았다.

보스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는 프랑스 파리과 덴마크의 코펜

하겐이다. 파리 시는 2019년까지 도심 운하에 수영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약 170 만 달러를 지출했다. 2024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파리는 이 장소를 다이빙 종목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코펜하겐 시는 오랜 정화 노력 끝에 2002년 200만 달러를 들여 항구지역에 수영 시설을 건설했다. 작년 여름에는 126,000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역 옹호론자들은 파리와 코펜하겐이 찰스 강에 모델이 되었다는 것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찰스강 관리단의 단장 레나타 차르너 씨는 “유럽에서는 도심의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전통”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보스톤 시민들은 찰스강이 수영하기에 깨끗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심리적 장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찰스 강에 수영장 프로젝트는 파리 시와 코펜하겐 시와는 달리 비영리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져 여러 관계당국의 승인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한자민 높은 교육받은 외과서비스
이제 휴랍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오엘 성형외과

【오엘 성형외과 휴랍이벤트】

볼보	500,000 - 100,000	이탈리아	300,000 - 240,000
비앙치	1,200,000 - 150,000	4인 300,000	240,000
비앙치	1,200,000 - 150,000	4인 300,000	240,000
비앙치	1,200,000 - 150,000	4인 300,000	240,000
비앙치	1,200,000 - 150,000	4인 300,000	240,000

김수님 1-800-HEALTH 711-811-0700

shalom DENTISTRY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전통은 계속된다, 독립기념일 축제 새롭게 변신할까

36번째를 맞는 보스톤 독립기념일 축제는 올해부터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가 주최한다

36회 맞는 행사, 올해부터 보스톤 팝스가 새로운 운영 주체 멜리사 에더리지, 앤디 그래머, 오돔 주니어 인기스타들 출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올해부터 독립기념일 콘서트와 불꽃놀이 축제가 새롭게 바뀐다. 36번째를 맞는 보스톤 전통의 독립기념일 축제의 새로운 운영주체를 맡은 팝스 오케스트라가 기존의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스톤 전통의 독립기념일 축제인 'Boston Pops Fireworks Spectacular'에는 멜리사 에더리지, 앤디 그래머, 오돔 주니어와 같은 인기 스타들이 보스톤을 방문한다. 멜리사 에더리지(56)는 90년대 'Yes I am'을 정점으로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던

여성 락커다. 특히 93년 백악관 행사에서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 하는 화제를 낳으며 미 연예계에서 성소수자들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불편한 진실 삽입곡 'I Need to Wake Up'은 다큐멘터리 영화 수록곡 최초로 아카데미상 주제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앤디 그래머(33)는 2014년에 발표한 음반 허니 아임 굿(Honey, I'm Good)으로 빌보드 차트 9위에 오르며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다. 뮤지컬 배우 레슬리 오돔 주니어(35)는 작년 토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브로드웨이의 흑인 열풍을 몰고온 바 있다.

블룸버그 TV&라디오는 보스톤 팝스와 공동으로 올해 행사를 주관한다. 행사 진행을 맡은 보스톤 팝스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전통과 새롭게 시도하는 도전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올해 공연 순서가 아직까지 베일에 싸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미국 국가 'Star Spangled Banner'에 맞춘 전통적인 전투기 비행쇼와 공연의 피날레를 알리는 20분여의 불꽃 놀이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스톤 팝스는 이번 공연에서 신곡 'Sum of Us'를 초연할 예정이다.

찰스강 에스플라나드에서 열리는 보스톤 불꽃놀이 축제는 지난 197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8번째를 맞았다. 작년까지 이 축제는 '보스톤 포 셀

레브레이션(Boston 4 Celebrations)'라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단장인 데이비드 무가(78)씨가 작년 축제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면서 축제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다. 게다가 작년 이벤트에는 협력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서 무가가 자비로 2백만 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축제에 참여해 왔던 보스톤 팝스가 작년 10월 이 축제를 계승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스톤의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올해 축제의 진행방식과 보안 절차는 예년과 비슷하다. 3일에 리허설을 진행한 뒤 4일이벤트가 당일의 찰스강변의 에스플라나드는 오전 8시에 개방한다. 오후 8시에 시작되는 콘서트는 오후 10시 30분에 20여 분간의

불꽃놀이로 그 절정을 맞은 뒤 오후 11시 콘서트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보안을 위해 총기, 백팩, 드론,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자가 제조 음료, 유리병, 캔 및 2리터 이상의 1회 이상 마개가 개봉된 음료는 반입이 금지된다. 접의식 의자와 바퀴가 없고 어깨끈이나 손잡이가 있는 아이스박스, 가로X세로 각각 10피트 이하의 팝업텐트와 담요는 허용된다.

이번 공연은 TV와 모바일 및 인터넷 라이브 중계(블룸버그),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된다. 특히 이번 공연부터는 스케줄과 지도, 공연 진행상황 및 SNS 반응 등을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Boston Pops Fireworks Spectacular)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편리한 공연 관람을 즐길 수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the **biggest**
sale of the
season!

절약

70%
OFF

정상가에서

Last Call[®]

Neiman Marcus

코틀리 플레이스 617.536.3660 내릭 몰 508.620.5700

업선된 모피에 50% - 65% 할인; 다른 안하는 것을 안함; 모피는 모든 상점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사전 판매 대상이며, 원산지 표시될
이전 시즌의 상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0%-70% 할인은 NM 상점과 NeimanMarcus.com에서 특정 카테고리 및 상품에 해당하며,
제외가 적용됩니다. 임시 가격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션 구매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할인행사는 2017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Last Call[®] 온라인과 매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던킨 도너츠 이번에는 스테이크 소송

스테이크 샌드위치에 스테이크가 없다? 뉴욕 거주 여성 던킨 상대로 연방 소송 제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캔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던킨 도너츠가 소송을 당했다. 던킨 도너츠에서 판매 중인 '스테이크 앤 에그 샌드위치'에 스테이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쉘렌 쉐넌은 자신이 구입한 스테이크 앤 에그 샌드위치에서 스테이크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연방 법원에 던킨 도너츠를 고소했다. 소장에서 쉐넌은 던킨 도너츠에서 판매 중인 샌드위치에 들어 있는 스테이크는 "같은 쇠고기를 사용한 스테이크보다 낮은 등급의 제품"이라며 던킨 도너츠가 소비자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쉐넌은 지난 6월 21일 퀸즈에 위치한 던킨 도너츠에서 3.99달러를 지불하고 스테이크 앤 에그 샌드위치를 구입했다. 베이컨이나 햄, 소시지를 사용한 에그 앤 치즈 베이글보다 무려 50센트를 더 지불하고 스테이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구입했지만, 쉐넌이 기대했던 스테이크는 들어있지 않았다.

지역과 매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던킨 도너츠는 스테이크가 들어 있는 프리미엄 샌드위치를 다른 샌드위치보다 50-60센트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쉐넌의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테이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햄버거에서 빵을 제외하고 고기만 먹을 때, 이런 음식을 햄버그 스테이크라고 부른다. 솔즈베리 스테이크 같

은 음식도 스테이크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같은 소고기를 사용한다.

4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쉐넌은 스테이크의 정의를 미 농무성에서 채용했다. 쉐넌의 소장에는 "농무성에 따르면 스테이크는 가축의 고기 중 뼈가 없는 부위로 만들어진다"라고 적혀 있다. 같은 소고기를 사용하면 스테이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던킨 도너츠는 2012년 3월부터 스테이크 앤 에그 샌드위치를 판매해 왔다. 던킨 도너츠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던킨 도너츠에서 판매 중인 스테이크 앤 에그 샌드위치에는 스테이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다



MA주 상원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핸드 프리 없이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MA주 상원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논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회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 이 논의 중이다.

이번 주 중에 상원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법안은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핸드프리 모드일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응급 상황일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자는 핸드프리 모드나 GPS를 시작하기 위해 휴대폰 화면을 밀거나 두드리는 정도의 행동만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자 메시

지를 읽거나 작성할 수 없고,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상원 의회에서는 이미 작년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하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현재 법안은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 주니어 운전면허 소지자(16-18세)일 경우에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급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나의노후?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피보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yinsurance.com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티제이맥스 저렴한 옷 가격의 비밀

노동부, 노동력 착취 제조사 제품 구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저가에 브랜드네임 옷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 있는 티제이맥스와 마샬의 옷들이 결코 백화점의 재고와 과다생산된 특정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스톤글로브는 13일자 보도에서 "매력적인 티제이맥스의 상품들이 결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프레밍햄에 본사를 둔 티제이맥스는 2011년까지 85%의 의류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들였다. 랄프로렌 플로셔츠건 무명 브랜드이건 옷공장에서 사들였으며 이 옷공장들은 정부의 노동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티제이맥스, 포에버 21 그리고 로스스토어스 등 10개의 미국 소매체인들이 LA 지역의 저임금 의류공장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지역 의류공장 77곳을 무작위로 설정해 검사한 결과 85%가 위법업체였으며 임금체불만도 1백30만불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 노동자들은 과테말라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로 시간당 \$4에 가혹한 근무환경에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류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류를 구비하기 위해 티제이맥스는 LA의 의류공장 또는 해외의 무명 공장의 상품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임금부 수석 집행관에서 물러난 데이비드 웨일은 "노동자들이 (저가 옷의) 모든 부담을 감당했

으며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보통 대형 판매점들과 이들 공장은 하도급의 하도급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티제이맥스 등과 같은 대형 업체들에게 하도급 업체의 노동 관행을 감독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티제이 맥스는 "자신들은 모든 도급업체들에게 명확하게 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자신들과 이들 의류업체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티제이맥스를 연구한 로널드 헤스 마케팅 교수는 지난 10년간 업체들은 티제이맥스 특성에 맞게 상품을 생산했으며 이들은 상당수가 브랜드 네임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샬에서 플로셔츠를 발견했다면 이는 결코 초과 생산 재고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랄프로렌과 케빈클라인은 티제이맥스와 계약해 이 회사가 자신들의 디자이너 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티제이맥스는 이러한 라이선싱 계약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티제이맥스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 회사는 18,000개의 의류업체들로부터 옷을 구입하며 백화점 납품 취소 물량, 과대 생산제품, 시즌이 지난 후 떨어 세일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천800개 이상의 판매점을 보유해서 대량구매가 가능하다는 커다란 장점을 이용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티제이맥스는 소비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사로잡았다. 티제이맥스는 지난 10년간 매출이 두배로 늘었으며 올해만도 330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티제이맥스는 미국내 최대 매장을 자랑하는 메이시스보다 더 많은 옷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보스톤글로브는 트럼프 정권하에서 티제이맥스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스톤 노동부의 관료 테드 피츠제럴드만 "LA지역의 의류타운을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올스테이트 보험사 발표, 보스톤 자동차사고 가장 많은 도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이 미국에서 가장 자동차 사고가 많은 도시로 꼽혔다.

올스테이트가 발표한 자동차 사고신고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200여 개 주요도시들 중 보스톤 운전자들은 최소한 올스테이트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최악의 운전자로 밝혀졌다. 보스톤 뿐만 아니라 우스터, 스프링필드 등이 미국내 가장 사고가 많은 도시로 5위 안에 선정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보스톤에서의 사고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스톤의 운전자들은 미국내 다른 도시 운전자들에 비해 사고 발생 확률이 80%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율은 2016년 조사보다 12% 높아진 것이며 2015년에 비해 22%나 급등했다.

올스테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운전자들은 10년에 한 번 꼴로 추돌사고를 냈지만 보스톤의 운전자들은 3.6년만에 한 번씩 추

돌사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자료에서 보스톤 운전자들은 미국 전국 평균에 비해 사고신고를 접수할 확률이 30%만 높았다. 당시 보스톤은 우스터에 이어 두번째로 사고가 많은 도시였었다.

보스톤의 운전자 사고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우스터는 그동안 계속 유사한 사고율을 유지해왔다. 올해 우스터는 볼티머어에 이어 3위에 위치할 정도로 낮아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도시들은 미국내 최악의 10개도시에 상당수가 포함됐다. 보스톤(200)과 스프링필드(196) 외 최악의 사고도시는 스프링필드가 195위, 프로비던스가 194위 그리고 뉴헤이븐이 192위를 차지했다. 올스테이트가 조사한 200개 도시 리스트에 포함된 뉴잉글랜드 도시중 가장 뛰어난 도시는 커네티컷 소재 브리지 포트였지만 189위를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美에 조부모·약혼자만 있다면, 6개국민 '입국 불가'

대법원 판결에 탄력받은 새 행정명령, 29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슬람권 6개국 국민 및 모든 난민은 향후 미국 비자 신청시 미국내 가족과 '가까운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CNN 등은 시리아·수단·소말리아·리비아·이란·예멘 등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되는 이슬람권 6개국 국민들이 향후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국내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또는 형제와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승인을 받은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난민 신청을 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조부모나 손주, 삼촌이나 숙모 또는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약혼자는 행정명령 상의 '가까운' 사이로 분류되지 않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하는 것이 골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에 대해 미국과의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단서를 붙임으로 부분적으로 되살려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 항소법원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순회항소법원이 행정명령 효력에 대한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상급심인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미국 국무·법무·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구체

적인 시행 방안 등을 고심해 왔고 그 결과 "미국내 가족과 가까운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됐다고 가디언 등은 설명했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또한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단순히 입국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대) 적법한 관계를 꾸준히 맺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인이나 학생, 근로자, 교수는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lchung@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안보이게 휴대' 美 총기권한 확대에 시장단 '노(No)'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전역의 시장단이 26일 '컨실드 캐리'(Concealed Carry·무기를 보이지 않게 소지할 수 있는 권한) 허가자가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하 양원 공화당의 제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올해 초 리처드 허드슨(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컨실드 캐리 상호호혜'(Concealed Carry Reciprocity) 법안은 특정 주의 컨실드 캐리 허가자가 유효한 허가증과 사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주에서든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컨실드 캐리 허가증을 한 주에서 취득한 뒤 다른 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처럼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즉, 운전할 수 있는 권리처럼 수정헌법 제2조에 적시된 무기 소지의 권리 또한 주 경계선을 넘는다고 해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인데 미국내 최대 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도 법안을 적극 옹호

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시장단 회의는 26일 열린 연례총회에서 빌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주도로 이 법안의 목적은 총기 폭력을 줄이고 또 막기 위해 우리가 벌이고 있는 모든 노력에 완전히 상반된다"고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장단은 결의안에서 "법안으로 인해 합리적인 총기(소지) 기준과 적절한 심사 절차를 유지할 각 지역 정부의 역량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단의 이번 결의안 채택에 총기 규제 찬성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기 규제 지지 단체인 '총기 안전의 마을'(Everytown for Gun Safety)의 존 페인블랫 대표는 허드슨 의원의 법안이 "총기 로비단체의 '꿈'과도 같은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컨실드 캐리 상호호혜 법안으로 의회는 각 지역의 공공안전 관련 법률을 없애고 가장 취약한 주의 법을 전국적인 버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lchung@news1.kr

트럼프, '가짜 타임 표지' 걸었다 들통나 망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타임 표지'로 망신을 사고 있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그룹이 소유한 골프클럽 17곳 가운데 최소 4곳에는 트럼프를 표지 모델로 내세운 미국 유희지 '타임'의 표지가 장식돼 있다.

이 표지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팔짱을 낀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이 담겼다. 헤드라인과 부제는 '도널드 트럼프, 어프런티스가 대성공을 거뒀다!' '트럼프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심지어 TV에서까지!' 등이다. 발행 일자 2009년 3월 1일이다.

하지만 이 표지는 가짜다. 타임은 2009년 트럼프를 표지모델로 쓴 적이 없으며, 그해 3월 1일 발행한 호도 없다. 같은 달 발행된 호는 3월 2일자로 배우케이트 윈슬렛이 표지에 실렸다.

타임 측 대변인은 "이 표지가 진짜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그룹은 누가 이 가짜 표지를 제작했는지, 무슨 이유로 골프클럽에 장식했는지 해명하지 않았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는 트럼프 골프클럽의 장식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보도 이후 타임은 가짜 표지를 골프클럽에서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soho0901@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어 (49500, 50000)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물장 전통상대어,
 소중한 내 아가씨께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집하게!

- 품질 좋은 대어, 신선한 재료
- 다양한 수산물 소품들
- 명품의 마음으로 만든 가래, 썬더
- 국내산 용기, 찜통, 공기
- 최면하고 유명한 내비게이션
- 용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We Help Good Business Become Great

LEE AND YUN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We find more buyers and sellers for you. We also offer a wide range of matching services for several industries. We've got the necessary tools and expertise to help you grow your business, and learn how to properly manage your expansion, or your next project. We partner with our clients to develop engaging marketing strategies, design high quality and scalable solutions, and build rich brand experiences.

781.854.7608(USA) 070.4239.7608(Korea)
www.leeandyun.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페트야 사태로 '美 NSA 불신론' 재점화

페트야 · 워너크라이 뿌리 '이터널블루' 유출 책임 "개발자 아닌 사용자 잘못" 변명만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 세계를 뒤흔친 랜섬웨어 '페트야' 사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 불신론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28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전날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페트야는 러시아와 유럽·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감염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를 풀기 위해 3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NSA 불신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페트야가 지난달 100여개국에 퍼진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서다.

이 뿌리는 NSA의 유출된 해킹 도구 '이터널블루'다. NSA가 약 5년 전 정보수집 목적으로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운영체제(OS)의 취약점을 이용

한다.

이와 관련해 브래스스미스 MS 사장은 지난 5월 정부가 OS의 취약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워너크라이 사태가 "미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일부 도난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두 달 연속 랜섬웨어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작 무기를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는 NSA와 미국 행정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을 배후로 지목·의심한다. 무기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미 국토안보부는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번 사태에서는 러시아에 시선이 쏠린다.

NYT는 이와 관련해 피해 기관 및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선불리 디지털무기(이터널블루)를 개발했으며 이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러시아·중국 등 적대국들이 사이버무기 개발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NSA의 해킹 도구를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터널블루를 해킹한 해커단체 웨도우브로커는 현재 비용을 지불할 경우 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웰링호프 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이제 북한과 이슬람국가(IS)와 같이 NSA의 도구에 접근 가능한 '배우들'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국가와의 경제 및 기타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soho0901@news1.kr

페이스북 이용자 20억 명 돌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이용자가 20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04년 서비스를 출범시킨 지 13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20억 명이면 전 세계 인구인 75억 명의 26.6%에 해당한다. 4명중 한 명이상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2년 10억 명을 돌파한데 이어 20

억 명도 돌파해 5년 만에 이용자가 두 배 증가한 셈이다.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20억 명

돌파 기념 행사는 없다고 전제한 뒤 "아직도 페이스북에 연결이 안된 사람들이 더 많다"며 "전지구인을 연결하는 것이 꿈" 이라고 밝혔다.

sinopark@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가장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모든 비디오를 어디서?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BS, MBC, SBS, tvN, JTBC, O'live, OCN, etc.

보스톤에서 한국전화번호를 사용하자!

엄마! 617 미국번호 아닌 013 한국번호로 전화해 ♥♥♥

분당: 5¢ (60원)
월 사용요금: \$1.50 (1500원)

013 Lte

가입 문의: **617.955.9112**
161 Harvard Ave. #13, Allston, MA 02134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로 FTA 급부상...배경은? 안보이전 해소?

트럼프 행정부 '무역불균형 해소' 이슈화 시도
문대통령 "한미FTA 이익균형 잘 맞춰져, 대화는 가능"

(워싱턴=뉴스1) 김현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안보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가 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무역불균형 문제 개선을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불균형 개선을 압박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의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 자동차 판매 장벽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며 "두 정상이 무역관계를 우호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같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FTA와 관련, "끔찍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성과를 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의 경우엔 한미 양국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데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뚜렷한 성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모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되, 이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제재 및 압박에 무게를 둔 트럼프 정부와 제재 및 압박과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간 이견을 보여왔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한 점점 찾기를 시도하면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추가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북핵 동결 약속'을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수준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 양국 정부간 이견 해소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신경전을 벌여 왔지만, 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번복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때문에 CEO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이슈에 매달리기 보단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의 접근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나선다면 원론적 수준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로 향하던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현재의 한미 FTA 협정은) 양국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대미투자도 크게 늘어 미국인들의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계승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해선 언제든지 경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대화'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단 원론적 수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참여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결정처럼 한미 FTA 문제를 미국의 입장을 견인하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과 달리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히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gayunlove@news1.kr

문대통령 '장진호 연설'에 美 참전가족들 '깊은 감명'

참전가족들 "기억해줘 고맙다"
영상 올린지 반나절 만에 폐북 댓글 2000개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장진호 전투 기념 연설이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적셨다. 미 해병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설 영상에 수많은 참전 용사 가족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관티코 국립 해병대 박물관 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현화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장진호 전투 참전 노병들과 흥남철수 작전과 관련된 인사들 앞에서 피난민이었던 부모 이야기를 거론하며 고마움을 밝혔다.

28일 오후 4시께 페이스북에 공개된 이 방문 영상은 반나절만에 26만 1000개 뷰를 기록했고 4272번 공유됐다. 댓글은 약 2000개가 달렸다. 미군 역사상 최악이라 기록될 만큼 전사자도 많았고 힘든 전투였기에 이를 기억해 준 것이 참전용사 가족들과 본인은 물론,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린 것. 특히 문 대통령의 개인사(문 대통령의 부모가 이 전투 이후 있었던 흥남 철수로 남쪽으로 이동)와 연

결돼 있다는 점에서 울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장진호 전투의 참전 용사였다고 소개한 로버트 시몬스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군의 대담한 업적을 알고 있다는 점이 영광스럽다"고 했다.

부친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소개한 린다 버크는 "아버지는 오키나와 전투보다 한국전이 더 힘들었다고 했다. 한국의 날씨가 무척 추웠고 총격전에서 아버지는 여러 친구를 잃었다"고 기억했다.

캐러티 에퍼리라는 미국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산사나무를 식수한 것을 가리켜 "훌륭한 선택"이라면서 "가시는 고통과 용기, 꽃은 새로운 삶의 기쁨, 열매는 커가는 우정"을 뜻한 다면서 "컴퓨터를 켜서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찬사했다.

현직 해병대원인 트래비스 브라운은 "우리 형제들의 희생에 한국 대통령은 겸손함과 감사함을 보였다. 다른 국가 지도자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 상당히 멋진 일이다. 매우 존경스

럽다"고 했다.

로버트 반스는 "내 아버지는 잊혀진 전쟁, 1952년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는 "해병대에 절대적인 존경심이 들었다"고 했다.

해병대에서 막 전역했다고 소개한 닐 랜든 잭슨은 "추위에 떨고 있는 한국 해병대군에 장갑을 준적이 있다. 그도 다음 날 내게 답례했었다"며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다.

군이나 그 가족들만이 문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신을 전직 교육자로 소개한 다니엘 네이션은 "훌륭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미 해병대 도우에 감사함을 표했다"면서 '항상 충성을'이란 해병대 표어인 "첼페르 피델리스"를 덧붙였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겨울 미국

1해병사단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에서 강계 점령에 나섰다 12만명에 달하는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에 포위되면서 거의 전멸 위기를 겪었다가 가까스로 성공했던 후퇴 작전이다. 후퇴 이후 미군은 흥남에 도착, '흥남 철수'로 피난민들과 함께 남쪽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살아난 사람이 너무 적어 미 전쟁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됐고 당시 뉴스위크는 "진주만 피습 이후 미군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yjw@news1.kr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관티코 국립 해병대 박물관에서 방미 첫 일정으로 박물관 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현화한 뒤, 기념사를 했다

'의혹조작' 이유미 구속...法 "사안중대·도주 우려"

영장심사 8시간30분만에...이유미 구치소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7시 50분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고 8시간30분 만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압송, 수감된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20분 시작해 4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씨가 구속되면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

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대 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던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유미씨를 긴급 체포하는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조치하고 28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7일 오후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37)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파슨스스쿨 졸업자로 알려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허위사실공표)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체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체포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려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수사대 상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사과할까 지켜볼까...안철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55)가 선뜻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며 비판하는 등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당으로부터 조작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며 공식입장 표명 등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첫 보고 당시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측근들과 방안을 논의하며 당시 대선후보였던 자신이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

고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 등 입장을 발표할 경우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원래 26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할 무렵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 해체론까지도 나오지만 당에서는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리고 있는데 이후 이씨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더라도 '책임을 깊

이 통감한다'는 정도의 사과와 함께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언급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안 전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해진 뒤 입장을 내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특히 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 카드도 별로 없다는 것도 장고 이유 중 하나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때는 당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신분이 없다.

dhspeople@news1.kr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지원 "문준용 증거조작 자료 보고받지 않았다" 주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입사 의혹 관련 자료를 문자로 전달했다는 발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 초 탄핵발의 관계 문자폭탄으로 새로운 전화로 바꿨지만 이 번도 공개됐다"며 "이 전화를 SNS 게재용 등을 위해 소지 관리 하라하고 전에 사용하던 전화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관이 보관하는 전화를 확인하니 5월1일 오후 4시32분, 33분, 37분, 46분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등 3인과 대화한 카톡을 캡처한 내용 11개를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저는 당일 제주에서 유세를 했고 비서관은 당시 대선본부 뉴미디어팀에 파견 근무 중 경남 상청 출장, 저녁 7시30분경 상경했다"며 "전화 두 대를 위치추적하더라도 확인 가능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비서관은 늦게 열어봤지만 당시 많이 나돌던 예기로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일 밤 10시42분, 53분 문자 카톡 보고를 했지만 당무관계이고 전화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은 5월5일 오후 1시25분 음성파일을(같은) 바이버로 보내 왔지만 그 날은 이미 오전 11시에 당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고 파일도 오픈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이준서, 조작사실 대선 전 알았나? 이유미와 대화 추가로 드러나

국민의당, 불리한 내용 빼고 대화 내용 공개했나?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체포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알았다는 5월26일보다 훨씬 앞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대화는 SNS로 이뤄졌으며 시점은 5월8일이다.

이유미씨는 대화에서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아무 것도 못하겠다. 너무나 후회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백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하시니 미치겠다"고 말했다.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이 전 최고위원이 선거 전에 체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은 다른 SNS를 통해 이씨를 상대로 "사실대로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지?"라고 물어 체포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유미씨가 대화 내용 어디에서도 '조작'이라는 사실까지는 어디에도 털어놓지 않아 단독 범행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의당을 상대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불리한 내용은 빼고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전날 국민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회의 대화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6일까지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은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로 이유미씨가 추후 조작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보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장 김관영 의원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 추측하고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당 조사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당시 체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p>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p>	<p>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NEW LISTINGS				LISTINGS	
<p>Residential</p> <p>Single Family</p> <p>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p>	<p>Residential</p> <p>Condo</p> <p>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p>	<p>Commercial</p> <p>살롱 & 스파</p> <p>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p>	<p>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p> <p>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p> <p>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p> <p>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p> <p>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p> <p>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p> <p>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p> <p>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p> <p>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p> <p>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p> <p>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p> <p>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p> <p>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p> <p>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p> <p>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p> <p>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p> <p>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p> <p>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p> <p>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일식당</p> <p>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컨비니언스 스토어</p> <p>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비즈니스 콘도</p> <p>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한국식당</p> <p>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세탁소</p> <p>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고성 오간 김상곤 청문회...이념편향 놓고 與野 실전

야 '사회주의자' VS 여 '헤이트 스피치'

(서울=뉴스1) 김재현, 김현정 기자 =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 논란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사회주의자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야당은 '후보자를 향한 언어폭력(hate speech)'이라고 맞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김 후보자는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창립,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등 삶의 궤적을 보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반대하는 단체 활동 경력이 많다"면서 "후보자의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향하느냐. 후보자가 그 자리(교육부장관)에 가면 대한민국 학생이 저런 인식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전태일을 통해 사이버노동대학은 사회주의 당을 재건하지는 운동을 하고 이념을 가르친 곳인데 후보자가 그곳의 총장이었다"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자"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석기 의원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청문회는 사상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 대한 신상검증은 해야하지만 과거 색깔공세를 연상케 하는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전재수 의원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청문회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적폐 청산의지와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 후보자가 검증받는 자리"라며 "21세기에 19세기 박물관에나 있을법한 사회주의 타령하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에 "정치적인 견해나 이념 등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헤이트 스피치(언어폭력)"라며 "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이트 스피치는 내용을 곡해해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어떠한 위험한

생각 갖고 있지 않고 두 차례 (경기)교육감을 하면서 발돋움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kjh7@news1.kr

인사청문회서 난타당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운명은?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29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송 후보자에 대해 적격 또는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앞서 일부 야당은 송 후보자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 인사청문회 후에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를 열고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보다는 '불참'이 야당의 확고한 의지를 부각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 청문과정을 지켜본 여론의 방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전날 인사청문회는 위원간 고성, 막말, 정당간의 견차로 정회 또는 파행이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청문회 전부터 공개된 송 후보자에 대한 납품비리,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의 고액고문료, 음주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고액 고문료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와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만취 음주운전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관련 추가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기생과 음주 후 동기생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 후보자가 음주폭행 관련 측근의 징계 수

위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였고 살이 많이 빠져 수위를 낮춰줬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됐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질타와 함께 관련 해군의 수장이 군 규정을 엄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그럼에도 청문회 중반에 이르러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당론과 달리 한반도 안보 불안과 국방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후보자 지지를 선언했다.

방산비리척결, 군 구조 개편,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은 노무현정부에서 완성된 '국방개혁 2020'에 기초한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계획과 작성의 핵심적 인물로, 해군참모총장으로 해군 내부의 개혁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진해에 있던 해군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3함대를 부산에서 목포로 이동시킨 것은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 내부의 다양한 반대에도 '변화'와 '개혁'의 목표를 완수한 점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높게 평가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송 후보자를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볼 것인지 '도덕적 흠결로 인한 부적격자'로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의 선택을 국회가 지켜보는 이이다.

playingjo@news1.kr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3無 후보' 조명균, 무난한 청문회 대화록 실종 '사과'

(서울=뉴스1) 박상휘, 이정호, 이형진 기자 =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29일 인사청문회가 큰 쟁점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형국이다.

별도의 신상문제나 도덕성 검증이 크게 제기되지 않아 이번이 없다면 조 후보자는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현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흠잡을데를 발견하기 어려워 다행"이라고 말했으며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간에서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결점이 없어 3무 후보라고 한다. 결벽증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이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2013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판단, 조 후보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NLL 포기' 발언은 대화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심 재판부도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후보자가 당시 전자문서가 폐쇄되기 전 종료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초본은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지만 후보자의 무책임한 행위

까지 무죄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화록을 삭제한 이유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며 "문서관리 카드를 삭제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초본을 삭제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 초본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만, 당시 노 대통령과 저희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고 소명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개성공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다만, 북핵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sanghwi@news1.kr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공: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성형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진료 & 성형 수술 시료로 & 비수술성
이제 모바일로 진료도 예약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립니다.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고성형, 눈성형, 가슴성형, 지방흡입, 지방이식, 안대안정, 권문
렉스성형외과 당신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렉스성형외과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세요.

- 최고의 품질인 시술용 구축 - 1차로 200만 원 정도, 2차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 가연성 맞춤 성형 - 2차 수술을 최소화하여 건강을 지키고 회복 기간도 단축시켜드립니다.
- 빠른 입성/회복 - 수술 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회복 기간도 단축시켜드립니다.
- 휴람을 통한 진료 - 고국방문 진료로, 고국방문 진료로, 고국방문 진료로.
- 시술 후 의료보험 - 시술 후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고국방문 진료로, 고국방문 진료로.

<p>상안검, 하안검</p> <p>1차 수술: 440만원 ~ 168만원 2차 수술: 440만원 ~ 168만원</p>	<p>스마트 리프팅</p> <p>1차 수술: 600만원 ~ 800만원</p>
<p>폴페이스 지방이식</p> <p>1차 수술: 200만원 ~ 200만원</p>	<p>올인원 지방흡입</p> <p>1차 수술: 880만원 ~ 280만원 2차 수술: 600만원 ~ 450만원 3차 수술: 400만원 ~ 350만원</p>

정재훈 대표원장
 ● 15년 이상의 의료 경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전공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전공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전공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전공

부가제 관련 정보
 휴람을 통해 고국방문 진료도 예약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립니다.

김수남 1-844-DOHURAM 11-844-364-8729
 11-844-364-8729 / 11-844-364-8729
 haram@haram.com / www.haram.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Ultimate Smile

아이콘덴탈
Quality Dental Care

렉스덴탈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양승태, 법관회의 의결 '반쪽' 수용...법원 내홍 계속되나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없이 사실상 '종결' 수순
"퇴임 이후 가능한 상설화만 수용...당면 과제는 외면"

(서울=뉴스1) 최동순, 김일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일부만 수용하면서 법원의 내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분 수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정작 중요한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실상 '조사 종결'을 선언한 것이어서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대표법관 및 전체 판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언급하며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을 푸는 열쇠로 꼽혔던 법원행정처 사법행

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 물적조사에 대해서는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 등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가적인 진상규명 없이 '사법 블랙리스트' 논란을 덮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일선 판사들의 문제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조사 안건은 법관회의 의결 당시에도 70~80%의 찬성률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에 대한 연거 및 축소 압박을 가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제

대로 된 물적조사 없이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명단이 저장돼 있다는 의혹이 일던 컴퓨터에 대해서는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와 조사권 위임을 의결하면서, 향후 조사를 위해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2016년·2017년에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대한 보존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해 왔다.

판사회의에 참석한 서울지역 한 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에 대해 "(법관회의 의결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됐고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마친 사안"이라며 "결의 내용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당장 눈앞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회의 상설화 등 사법제도 개선 과제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장기적 과제로 논의하자고 선언한 것이어서 불협화음



양승태 대법원장

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관회의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또 국회에서 헌법상 독립기구 '사법평의회' 도입 방안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법부 자체개혁 방안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는다.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 지방법원 판사대표는 "법관회의 상설화는 사실상 양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야 구체화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면 거부할 경우 받게 될 정치적 부담만 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마당에 어떻게 확산될지 몰라,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ol@news1.kr

장시호 "민정수석실 수집 인사검증 자료, 최순실이 받아"

"崔 서류 윤전추에 전달 직후 문체부 1차관 바뀌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씨(61) 주변 인물과 정부기관장 등의 세평을 수집한 인사검증 자료를 최씨에 전달했다는 정황이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우전수석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 조카 장시호씨(38)는 최씨가 보관 중이던 민정수석실의 '세평 문건'에 관해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장씨가 지난해 7월경 최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민정수석실 세평자료 사진을 영재센터 컴퓨터 외장하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

촬영 경위에 대해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하면서 최씨가 '민정(수석실)에서 자꾸 너희를 주시하고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고 했다'면서 '제가 본 서류에 괄호 열고 '민정'이라고 쓰여 그게 뭔지 아버지께 여쭙보려고 찍었다"고 밝혔다.

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최씨의 개인 트레이너 등 체육관 직원들,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장순호씨가 미르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했던 조모씨에 대한 세평이 기재돼있다.

장씨는 "최씨가 그런 자료를 보며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강행 혹은 변경했나"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 최씨의 지시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최씨가 '이거는 민정에서 검증했는데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더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속적으로 민정수석실과 접촉하며 정보를 수집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장씨는 "최씨가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받았다는 밀봉된 봉투 여러 개는 인사 검증자료였나"는 검찰 측 질문에 "그 안에 서류가 많아서 잘 모르겠다"면서도 "일부 내게 준 것은 인사 관련 자료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다시 "인사검증 자료 위에(최씨가)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직접 서류 위에 네임펜으로 적적 여부, 의견 등을 써서 대통령에게 줬다는 것이냐"고 하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또 2014년 '정윤희 문건' 파동 이후 최씨와 장씨의 어머니 최순득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민정수석실로 추정되는 곳과 통화를 한 뒤 최순득씨에게 "민정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장씨는 "(당시 그 자리에서 최씨가) 'VIP에게 말씀을 드려야하지 않겠냐, 이것을 덮어주셔야한다. 그래도 유언이 아빠인데,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장씨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우전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우전 수석을 경질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찰 측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고 우전 수석도 오래 되신 분이라 잘 알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장씨는 "최씨의 지시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으로부터 받은 인사 관련 서류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전달한 직후 문체부 1차관이 박민권에서 정관주로 교체됐다"는 검찰 측 질문에 "조사를 받을 때 정확히 알았고 아는 부분만 말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문체부 1차관의 교체 사실에 대해 최씨를 가리키며 '대단하시네요'라고 말했다"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이날 전직 문체부 직원 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 증인신문을 7월24일로 연기했다. ysh@news1.kr

MBC 근로감독관 파견, "정상화 첫 출발" vs "방송장악 포석"

(서울=뉴스1) 서송희, 성도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MBC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 것을 두고 29일 여당과 국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이 심각하게 훼손 당해온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회복하고 온 국민이 소원하는 공정방송을 실현해 공영방송 MBC가 정상화되는 첫 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MBC 사측은 집행부에 대한 형사고소를 비롯해서 190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 제작부서 조합원 비제작부서로 부당 전보, 단협 일방 파기 등 무수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며 "MBC 사측은 91명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제작인력을 스케이트장 관리 영업부서 등에 배치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하고 노조 전임자도 현업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 노조 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 경영진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해왔고 해고무효라든지 징계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필요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문진법, 통합방송법, EBS법 개정안 등을 통해 소유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시급해서 이뤄진 조치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를 의심했다.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강효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며 "집권 50일만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언론사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이 MBC 갈등 해결보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song65@news1.kr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Asking: \$1,529,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 Clara Paik



Just Listed: Condominium
26 Broad Street #101, Marlborough, MA
Asking: \$35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31 Arlington Road # 5, Woburn, MA
Rental Price: \$ 1,850/ mo
Listing Agent(s):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 BR: 1 BA: 2
273 Commonwealth #3, Boston, MA
Rental Price: \$7,000 /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Just Listed: Rental | BR: 2 BA: 2
295 Salem Street #29, Woburn,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Al Magurn
508.733.2949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33 Winter Street, Belmont, MA
Asking Price: \$949,000
Listing Agent(s): David Oliveri



Just Listed: Condominium
111 Brigham #1D, Hudson, MA
Asking Price: \$272,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666 Mass Ave #36, Boston, MA
Rental Price: \$1,915/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41 Payson Road #1, Belmont, MA
Rental Price: \$2,70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216 Rindge Ave #4, Cambridge,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Ping Bai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00 Station Landing #1005, Medford, MA
Rental Price: \$2,35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ianna Johnson-King
336.392.7838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오프 시즌 패트리어츠의 잘못된 판단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디펜딩 수퍼볼 챔피언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패트리어츠는 어느 때보다 바쁜 오프 시즌을 보냈다. 그 결과 패트리어츠는 수퍼볼 우승을 차지했던 작년보다 더 강하고 향상된 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패트리어츠의 전력이 상승되었지만 오프 시즌 동안 패트리어츠가 했던 일들이 모두 잘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프 시즌 있었던 일 중 패트리어츠의 판단이 아쉬웠던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자.

길모어 4천만 달러 보장

코너백 스테판 길모어와 계약을 맺은 것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길모어는 올해 27세로 아직 젊은 선수이고 프로 볼에 뽑힐 정도로 이미 실력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주고 길모어를 영입한 것은 패트리어츠답지 않은 계약이었다.

길모어의 계약 내용은 5년-6천 5백만 달러이다. 그리고 전체 액수 자체도 크지만, 이 계약은 4천만 달러 보장이 라는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터무니없다고 여겨진다. 길모어는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이고 아직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이다.

길모어가 2016년에 프로 볼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해에 프로 풋볼 포커스의 패스 수비 순위에서 코너백 중 139위에 그쳤다. 패트리어츠는 젊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능성이 단지 가능성으로 그치고 실현되지 않더라도 패트리어츠는 막대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버틀러 계약 연장 실패

말콤 버틀러와의 계약은 길모어와 정반대로 향했다. 패트리어츠는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주고 길모어를 영입한 반면, 패트리어츠에서 성장해 스타가 된 버틀러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했다.

심지어 패트리어츠는 오프 시즌 동안 버틀러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제한이 있는 자유계약 선수였던 버틀러는 1라운드 드래프트 선택권을 패트리어츠에 양도하는 팀에 한해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올해 그런 팀은 나오지 않았다.

확실히 패트리어츠는 저렴한 가격에 버틀러를 1년 더 붙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시즌이 끝나면 버틀러가 뒤돌아보지 않고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틀러와 계약



패트리어츠는 오프 시즌 동안 버틀러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패트리어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버틀러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코너백이다. 프로 풋볼 포커스는 버틀러를 코너백 중 패스 수비 2위로 꼽았다.

거라폴러에 대한 결정

지미 거라폴러는 패트리어츠의 백업 쿼터백이지만 이미 실력은 주전 쿼터백인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올해 오

프 시즌 동안 특히 드래프트를 전후하여 거라폴러의 몸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언론에서 거라폴러의 이름이 수없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거라폴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어쩌면 패트리어츠 내부적으로 거라폴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내려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거라폴러

는 여전히 패트리어츠의 백업 쿼터백이고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이다.

패트리어츠는 거라폴러와 계약을 연장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드래프트를 앞두고 트레이드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상당히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라폴러 카드를 내놓을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이다.

jsi@bostonkorea.com

황재균, 데뷔전 홈런포 작렬...류현진은 4승 실패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황재균(30·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결승 홈런을 뽑아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동갑내기 류현진(30·LA 다저스)은 잘 던지고도 시즌 4승에 실패했다.

오승환(35·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세이브 상황에서 벤치를 지켰고 추신수(35· 텍사스 레인저스)는 안타를 추가했다. 김현수(29·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침묵했다.

황재균은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3루수로 선발 출전, 3-3으로 팽팽하던 6회말 2사에서 상대 선발 카일 프리랜드의 3구째를 받아쳐 솔로 아치를 그렸다.

황재균은 2볼에서 3구째 145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 당겨 좌측 펜스를 넘겼다.

27일 콜업 되면서 이날 데뷔전을 가진 황재균은 메이저리그 입성 첫 경기에서 마수걸이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 감독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한방이었다.

황재균은 이날 4타수 1안타(1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황재균의 홈런은 이날 경기 결승타로 기록됐다.

황재균의 진가는 3-3으로 팽팽하던 6회 드러났다. 2사 후 타석에 들어선 황재균은 프리랜드의 공 2개를 침착하게 골라냈고, 3구째 직

구가 가운데로 들어오자 거침없는 스윙으로 펜스를 넘겼다. 황재균이 베이스를 돌아 더그아웃으로 들어오자 팀 동료들은 열렬한 환호로 그를 반겼다.

이날 21번째 코리안 메이저리거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황재균은 데뷔전에서 홈런과 타점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황재균의 활약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는 5-3으로 이겼다. 샌프란시스코는 30승51패로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 콜로라도는 8연패의 늪에 빠지며 47승34패로 같은 지구 3위에 머물렀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엔젤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 5%이닝 6피안타(1피홈런) 1볼넷 8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87개.

5회까지 무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하던 류현진은 6회말 2사 2루에서 안드렐톤 시몬스에게 통탄의 좌월 투런포를 얻어맞고 고개를 떨궜다.

다저스는 8회초 터진 트레이스 톰스의 솔로 홈런과 9회초 2사에서 나온 야스마니 그랜달의 솔로포로 2-2 극적인 동점에 성공했다. 류현진도 패전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결국 9회말 마무리 캔리 켄슨이 폭투와 실책을 묶어 결승점을 내주며 2-3으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다저스는 52승28패를 기록했지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는 지켜냈다. 에인절스는 42승40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오승환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 경기에 결장했다. 팀이 9회까지 4-2로 앞선 세이브 상황이 펼쳐졌지만 오승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승환을 대신해 트레버 로젠탈이 9회 등판, 1점을 내주며 4-3 승리를 지켜냈다.

오승환은 전날(28일) 팀이 5-4로 앞선 9회말 등판, 동점 홈런을 맞고 시즌 3번째 불륜세이브를 떠안았다. 팀도 연장 끝에 5-6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전날 경기의 영향이 이날 오승환을 벤치에 앉혀준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원정 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클리블랜드전에서 4

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20경기 연속 출루에 마침표를 찍었던 추신수는 이날 다시 안타·출루 행진을 재개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3를 유지했다.

김현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 7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삼진에 그쳤다.

김현수는 2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수는 전날(28일) 1타수 무안타 2볼넷으로 출루에는 성공했지만 이날은 한번도 1루를 밟지 못했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43에서 0.236으로 하락했다.

doctorj@news1.kr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황재균이 28일 AT&T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6회말 데뷔 첫 솔로홈런을 터트린 뒤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통영 스탠포드 호텔 회원권 계약중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호령했던 통제영 포구에
21세기 최첨단 호텔 콘도 리조트가 우뚝 섭니다.



LISTINGS



북부 보스턴 부촌의 이탈리아 카페
ASKING \$80,000



퀸지 마리나 베이의 고급 1 B/R 콘도
ASKING \$500,000



하바드 스퀘어 성업중인 아침, 점심,
샌드위치 가게
ASKING \$70,000



보스턴 서부 성업중인 세탁소
ASKING \$130,000

Jay B. Lee 781.654.5281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TEL. **617.467.5218**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unwoody Parish of Christ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임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혼..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로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바른 의료
앞선 의술
바른 진료

세란병원 제휴 런칭기념 종합검진 특별가

- 기간 :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해당 기간내 검진 시행자)
- 대상 : 휴람을 통한 예약 진행 해외거주자에 한함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S등급 병원(최고 등급)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란병원은 의료관광 휴람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동포분들께 최고의 시설에서 편리한 검진을 해외동포 특별가로 제공합니다!

- ◆ 1,200여평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 검진센터!
- ◆ 병실이 아닌 호텔급의 특급 객실 셋팅으로 편안한 숙박 제공!
- ◆ 최신 스마트 검진 시스템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해진 원스탑 검진과 2차 진료 연계!
- ◆ 검진과 스파, 미용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편안한 검진과 피로 회복 및 성형 뷰티 관리까지!
- ◆ 일산, 파주, 고양, 서서울 지역에 체류하는 해외 동포분들의 편리한 접근성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앞 1분거리)

[종합검진 기본 항목]

기본진료(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인과(안저, 안압), 폐기능, 체성분, 심전도, 흉부촬영, 위장검사(수면내시경), 종양표지자(간, 전립선, 난소암), 상복부초음파(간장, 신장, 담낭, 비장, 췌장), 부인과(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당뇨(혈당, 당화혈색소), 신장기능, 간기능, 고지혈증, 심혈관기능, 동맥관찰염, 혈관판상질환, 전해질, 영양기능, 갑상선기능,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일반혈액, 소변검사, 구강검사



휴람 당일 종합검진

★ 당일 08:30~ 12:30(오전 4시간) / 즉 제공

남성 50만원	여성 50만원	49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 지방CT 중 택1 검사),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 지방CT 중 택1 검사),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휴람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셋트 제공

남성 80만원	여성 80만원	69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대장 수면내시경, 동맥경화 협착 검사, A형간염검사, CT 선택검사 1 또는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대장 수면내시경, 동맥경화 협착 검사, A형간염검사, CT 선택검사 1 또는 초음파 검사 1 (유방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중 1),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휴람 정밀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셋트 제공

남성 150만원	여성 150만원	125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뇌 MRI, 뇌 MRA,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지방CT 중 택1 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혈액표지자), A형간염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뇌 MRI, 뇌 MRA,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지방CT 중 택1 검사), 초음파 선택검사 1 (유방초음파 또는 경동맥초음파 중 택1), 대장 수면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A형간염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혈액표지자)	

휴람 VIP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셋트 제공

남성 300만원	여성 300만원	244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부티성형 선택검사 1(화이트닝레이저, CO2레이저, 보톡스2부위 중 택1), 메디칼 테라피(80분), 영양제 투약상담후 본인에 맞는 영양제, MR 선택 검사 2 (뇌MRI, 뇌MRA, 요추MRI, 경추MRI 중 택2), CT 선택검사 2 (뇌, 폐, 경추, 요추, 복부지방, 부비동, 갑상선CT 중 택2), 모발증진속검사, 남성호르몬검사, DNA 유전자 19종검사, 심장초음파, 뇌혈류검사, 호모시스테인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폐암, 혈액표지자), A형간염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부티성형 선택검사 1(화이트닝레이저, CO2레이저, 보톡스2부위 중 택1), 메디칼 테라피(80분), 영양제 투약상담후 본인에 맞는 영양제, MR 선택 검사 2 (뇌MRI, 뇌MRA, 요추MRI, 경추MRI 중 택2), CT 선택검사 2 (뇌, 폐, 경추, 요추, 복부지방, 부비동, 갑상선CT 중 택2), 모발증진속검사, 여성호르몬검사, DNA 유전자 19종검사,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뇌혈류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PV)검사, 호모시스테인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A형간염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혈액표지자)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ru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North Attleborough 세탁소 프레스 파트타임 / 풀타임으로 일하실 분. T. 617-955-7932

Framingham 오피스에 있는 세탁소 한달간 8-2시(월-금) 캐쉬어 보실 분. T. 617-955-793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서머빌에 있는 테일러링&드라이크리닝 25년간 운영, 은퇴 예정, 급매. T. 617-776-4849

커네티컷세탁소 매매 연매상 \$150,000+ Rent \$1,500/월 (관리비 포함) T. 860-445-0411

브룩하우스 콘도 Rent 1,300sq 침실2, 화장실2, 주차(1) Heat/AC 포함 \$3,200 7/8월 입주 T. 617-877-0452

캠브리지 성업중인 한국식당 주매상 \$9,000+ 소유자 타주 이사 T. 508-962-2689

브렉퍼스트 트레일러 매매 플리마켓 피츠버그 MA T. 978-343-6080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4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콜/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교포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협회	781-854-8880
세약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정영규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스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궁방	617-437-0378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헤어/피부

해피독상	617-249-3131
피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주재용)	617-421-2282
한서진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 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형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한은애정치과	978-655-1583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압구정 YK 성형외과'

볼륨있는 동안 얼굴을 원한다면? '근육단위 미세지방이식' 으로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의 탄력과 지방이 줄어들고 모공이 넓어지면서 노화현상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화현상으로 외모적 콤플렉스를 호소하는 이들은 필러, 보톡스 등을 많이 찾는다. 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네트워크 압구정YK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 최근에 안전하고 얼굴 라인에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주는 자가지방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 자가지방이식이란?

지방이식은 자신의 복부나 허벅지 등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방을 채취한 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정제된 후 생착률이 좋은 순수지방세포들을 원하는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압구정YK성형외과의 지방이식 수술방법은 근육단위 미세지방이식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고 붓기와 멍을 줄여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지방이식은 이마, 관자놀이, 눈가, 눈밑, 광대, 볼, 턱선 등 얼굴 전체적으로 가능하며, 잔주름개선이나 처짐방지를 위해 중년층 뿐 아니라 얼굴에 선척적으로 살이 없거나,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얼굴 살이 빠져나이가 들어 보이는 은 여성들 경우도 지방이식을 많이 하고 있다.

지방이식 적용부위 및 대상

1.이마의 함몰이나 비대칭이 있는

경우

- 2.눈꺼풀의 함몰이 있는 경우
- 2.아원 볼을 볼륨있게 만들고 싶은 경우

경우

- 3.팔자주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4.전체적으로 얼굴에 볼륨을 살려어려보이고 싶은 경우

◎ 왜 근육단위 미세지방이식인가

지방이식의 핵심포인트는 “어떻게 생착률을 높여 볼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가?” 이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육단위 미세지방이식이다.

압구정YK성형외과의 지방이식은 근육단위로 나누어 지방을 이식을 한다. 얼굴에는 많은 근육들이 존재한다. 이 얼굴근육은 풍부한 얼굴의 표정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세밀하게 나눠진 수십개의 얼굴근육 위아래로 원심분리한 순수한 지방을 이식해준다.

이 방식은 기존의 지방이식보다 촘촘하게 지방을 넣어주어 생착률을 높이고 볼륨감을 더 오래 유지시킬수 있게 된다.

압구정YK 근육단위미세지방이식

장점

- 1.기존지방이식보다 생착률이 높다
- 2.지방이식 후 볼륨감이 오래간다
- 3.시술이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다
- 4.자가지방사용으로 이물감이나 염증 등의 발생확률을 낮출 수 있다
- 5.일정기간 내 보관된 지방을 재이식 할 수 있다.
- 6.지방괴사나 멍침현상이 없다.

◎ 나노지방(Nano)이란?

얼굴에서 눈가나 관자놀이 주변은 나노지방이식방법으로 수술한다. 기존 미세지방이식이 원심분리기로 지방을 1차만 분리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원심분리기를 통해 분리된 미세지방을 한 번 더 걸러 완전히 더 미세한 입자의 지방만 추출한다.

나노지방이식은 나노 캐놀라로 지방을 작게 골고루 여러 층으로 나누어 주입하기 때문에 생착률이 매우 높다. 섬세한 지방주입이 필요한 눈물고랑과 같은 예민한 부위에도 안정적인 지방이식이 가능하다.

◎ PRP지방이식이란?

PRP를 함께할 경우 주름노화개선, 피부재생에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PRP지방이식은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고농축 혈소판을 분리한 후 지방을 주입하는 시술법으로 혈소판에 함유된 자가조직치유 물질로 지방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콜라겐의 탄력 섬유가 증가된다. 덕분에 얼굴지방이식 시 생착률은 물론 손상되거나 노화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높다.

◎ 지방이식 수술 후 주의사항

근육단위미세지방이식의 수술시간은 약 1시간내외로 수면마취로 진행된다. 수술 후 첫 이틀 동안은 부기나 멍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점차 빠진다.

-잘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옆드리는 행동은 금하고 폭신한 베개를 2~3개 정도 받쳐서 주무시는게 부기나 통증



을 가라 앉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방이식 후에는 얼굴을 만지거나 누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생착률을 방해하고 심하면 얼굴에 자국이나 흉터를 남길 수 있다.

-지방을 뽑은 복부나 허벅지등이 약간 당기거나 불편감은 있지만 통증이 심하지는 않다.

-음주와 흡연은 상처를 더디게 아물게 하므로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4주 후부터 가능하다.

-지방이 자리를 잡는데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목욕탕이나 사우나, 찜질

방도 피하는 것이 좋다.

지방이식술은 얼굴 전체의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수술이기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방을 주입하게 될 경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 해지거나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이식은 자신의 얼굴에 맞는 조화로운 지방이식이 이뤄져야 하며,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지방이식	압구정YK근육단위미세지방이식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볼륨감	자연스러운 볼륨감
빈 공간으로 생착률 낮음	근육단위로 주입해 빈공간 거의없어 생착률높음
매끈하지 못한 피부표면	매끈한 피부표면
고르지 못한 지방이식	층층이 탄탄하게 지방이식
붓기와 멍이 많다	붓기와 멍이 적다
유지기간이 짧다	유지기간이 길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군함도', 황정민 · 송중기 · 소지섭 그리고 7천 배우가 만들 감동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톱스타 뿐 아니라 7000명의 배우들이 함께 한 '군함도'가 감동을 예고했다.

류승완 감독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동호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화 '군함도'(류승완 감독)의 전국민 알리미 발대식 쇼케이스에서 "나는 이 영화로 민족주의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영화를 흥행시키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이 영화가 좋은 질문 하나를 던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운을 폈다.

이어 "결국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괴물이 된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과 아이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괴물이 된다"라며 영화 속에 담고 싶었던 내용을 설명했다.

'군함도'는 일제강점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군함도에 가게 된 조선인들의 험난한 탈출기를 그린 작품. 황정민이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악단장 이강욱, 소지섭이 종로 일대를 평정한 경성 최고의 주먹 최철성 역을 맡았다. 또 송중기가 임무를 받고 군함도에 잠입한 독립군 박무영, 이정현이 갖은 고초를 겪은 조선 여인 말년, 김수안이 이강욱의 소중한 딸 소희 역을 맡았다.

류승완 감독은 쉽지 않은 소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이유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며 "나는 역사학자나 사회운동가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 영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본능적으로 그곳(군함도)에 카메라가 가고, 배우들이 가고, 거기가 펼쳐질 많은 일들이 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래서 시작된 영화"라고 이번 영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류승완 감독은 '군함도'에 출연한 7000여명의 보조출연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주연 배우도 주연 배우인데, 실제 영화도 보

시면 한 번도 못 본 풍경을 보실거다. 사람들 하나 하나가 연기하고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 혹독한 과정, 내가 편한 환경을 드렸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 혹독한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고, 좋은 작품 만들어주시는 출연자 분들께 존경을 표한다"라고 인사했다.

송중기는 이번 영화에서 류승완 감독을 처음 만났다. 그는 류승완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화 '주먹이 운다'를 10번 넘게 봤다. 감독님 영화에는 허세가 없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게 좋았다"라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그런 점에서 감독님과 해보고 싶다.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했는데 군함도에 불러주셨고, 역시 기대한 만큼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지옥보다 더한 지옥섬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조선인들의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어서 좋았다"라고 '군함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아역 배우 김수안은 함께 한 선배 배우들에 대해 재치 넘치는 묘사를 해 웃음을 줬다. 그는 황정민에 대해 "아빠는 처음 봤을 때 얼굴이 되게 빨개서 무서웠다"면서도 "아빠가 탭댄스 연습할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촌데레' 같은 부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또 송중기에 대해서는 "태양의 후예" 때부터 팬이었다"며 팬심을 드러냈는데 "진짜, 진짜 좋아했는데 배경 화면으로 하고 다 그랬는데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연기할 때 잘 집중이 안됐다. 붙는 신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라고 돌발 고백을 해 어린 배우들을 폭소케 하기도 했다.

한편 '군함도'는 오는 26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비정상회담' 스티븐연 출연 봉준호와 전화연결 진행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이 '비정상회담'을 찾아와 봉준호 감독과 전화 연결을 진행했다.

26일 방송된 JTBC 예능 '국경없는 청년회 - 비정상회담'에서는 스티븐 연이 출연해 아시아계 배우로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또, 스티븐 연은 영화 '옥자'로 봉준호 감독과 쌓은 돈독함을 설명했다. 스티븐 연에게 MC들은 "봉준호 감독과 소통이 어땠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스티븐 연은 "디테일한 면이 너무 좋은 최고의 감독이다"며 극찬했다. 이어 봉준호 감독과 전화 연결이 진행됐다.

MC들은 봉준호 감독에게 그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봉준호는 "뛰어난 배우여서 캐스팅 했다. 귀엽고 색시하다, 남자인 제가 봐도 설레이는 눈빛이다"라고 스티븐 연과 칭찬을 주고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편, 스티븐 연은 함께 연기하고 싶은 한국 배우로 송강호를 언급하며 계속해 그의 연기력에 대해 칭찬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근데 같이 연기하고 싶진 않다. 그가 너무 잘해서 비교된다"고 존경을 표했다.

jjm928@news1.kr



강호동 치고, 이수근 받고 '신서유기4' 역대급 예능케미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강호동과 이수근, 두 사람이 화요일 밤 '배꼽 스티틀'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된 tvN '신서유기4'에서는 멤버들과 제작진이 본격적으로 미션과 게임을 선보이게 된 가운데, 기상미션부터 영화 패러디, 10분만 여는 나나매점의 레몬파티까지 방송시간을 꽉 채운 유쾌함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방송의 백미는 '요절복통 음악퀴즈'였다. 3대3으로 팀을 나누어 성사된 퀴즈 대결에서 강호동과 이수근, 그리고 안재현이 한 팀이 되었으며, 따로 또 같이 활약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강호동은 번번이 노래 제목을 맞추지 못하고 결승 매치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으며, 드라마 OST를 맞출 때 '천국의 계단'을 끊임없이 외치거나, 오답 퍼레이드를 펼쳐 '프로 아무말리'로 큰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이수근은 명불허전 인간 주크박스로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어떤 노래가 나오든 전주만 듣고도 가수와 제목을 맞춰 모두에게서 감탄을 자아냈고, 팀의 승리를 위해 여유 가득한 표정으로 멤버들에게 힌트를 주기도 하는 등 음악 퀴즈의 지배자로 활약한 것.

이에 더해 두 사람은 정답을 맞춘 뒤 자체적인 댄스 세레모니로 현장의 흥을 돋우고, 안방극장의 침샘을 자극하는 야무진 먹방까지 선보이는 등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하며 즐거움을 전했다.

이제 막 3회까지 방송된 '신서유기4'가 강호동과 이수근, 그리고 멤버들의 활약으로 화요일 밤 예능의 강자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가운데, 회를 거듭해 갈수록 더욱 강력한 재미를 선사하는 이들의 활약에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chi@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6월 19일 ~ 2017년 6월 25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9.4%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19.3%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16.1%
4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6.0%
5	KBS1	KBS9시뉴스	15.5%
6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13.4%
7	KBS2	해피선데이	12.8%
7	SBS	정글의법칙외일드뉴질랜드	12.7%
9	KBS1	전국노래자랑	12.3%
10	KBS1	인간극장	11.9%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4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5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6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7	KBS2	월화드라마(쌈마이웨이)
8	MBC	주말특별기획(도둑놈도둑님)
9	SBS	아침연속극(달콤한 원수)
10	MBC	아침드라마(훈장 오순남)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남이 될 수 있을까	불빨간사춘기
02	무제(無題) (Untitled, 2014)	G-DRAGON
03	나로 말할 것 같으면 (Yes I am)	마마무
04	SIGNAL	TWICE
05	오늘 취하면 (Feat. 창모) (Prod. SUGA)	수란
06	New Face	싸이 (PSY)
07	마지막처럼	BLACKPINK
08	NEVER	국민의 아들
09	I LUV IT	싸이 (PSY)
10	팔레트 (Feat. G-DRAGON)	아이유

숫자 퍼즐 (Sudoku)

		9		2		4		
2			6		8			
				1	7	2		
3	7				1	6		9
6								7
8	4	7				3		5
		6	9	5				
			1		2			8
		1		7		5		

7월 2일 - 7월 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훌훌 털어버려야</p> <p>●운수: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세상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금전:돈에 연연하다가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을 털어주세요. ●애정: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4, 8일 길일. 3, 6일 주의.</p>	<p>소띠 미리 대비를 해두는</p> <p>●운수: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주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p>	<p>범띠 냉철하게 살펴보고</p> <p>●운수: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다니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고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p>
<p>토끼띠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p> <p>●운수: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금전: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그동안 진 빚에 대한 부담도 벗겨 됩니다. ●애정: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 7일 길일. 6, 8일 주의.</p>	<p>용띠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p> <p>●운수: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전:아직은 안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양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 8일 길일. 4, 7일 주의.</p>	<p>뱀띠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p> <p>●운수: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금전: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가 있어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됩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6, 7일 길일. 2, 8일 주의.</p>
<p>말띠 감사하는 마음으로</p> <p>●운수: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금전: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 7일 길일. 3, 4일 주의.</p>	<p>양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p> <p>●운수: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애정: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6일 길일. 4, 8일 주의.</p>	<p>원숭이띠 크게 기지개를 펴고</p> <p>●운수: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금전:자신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8일 길일. 2, 5일 주의.</p>
<p>닭띠 밝고 환하게 웃는</p> <p>●운수: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금전:나가는 것이 많고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애정:기대해도 될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피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8일 길일. 2, 3일 주의.</p>	<p>개띠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p> <p>●운수: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이 들더라도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금전: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것이 많으니 금전문제로 잔심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애정: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p>	<p>돼지띠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p> <p>●운수: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손해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애정:겉으로는 팬클럽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7일 길일. 5, 8일 주의.</p>



이효리, 4년만에 신곡 발표 '서울'

(서울=뉴스스타) 황미현 기자 = 가수 이효리가 4년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이효리는 이날 오후 6시 새 앨범 선공개곡 '서울'을 발표한다. 이효리가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 2013년 5월 '모노크롬' 이후 무려 4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앞서 공개된 '서울' 포스터에는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효리의 몽환적인 눈빛과 빈티지한 색감, 여기에 'SEOUL'이라는 곡의 제목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스틸컷을 보

는 듯한 느낌을 줬다. 이에 포스터와 걸맞는 차분한 분위기의 세련된 곡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효리는 이번 앨범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였다. 이효리 본인이 대부분의 곡들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아티스트 이효리의 음악적 변화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지고 있는 상태다.

컴백을 앞두고 '무한도전'과 '효리네 민박' 등 여러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는 이효리가 음악적으로 보여 줄 또 다른 모습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키위미디어그룹의 케이툰 콜렉티브 레이블측은 "이효리씨의 컴백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팬 분들의 오랜 기다림과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장르와 완성도 높은 음악들로 채워진 이번 앨범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hmh1@news1.kr



무한도전X김수현, 박명수와 밥차 추격전... '진사' 특집도 기대 ↑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MBC '무한도전'에서 '찾아라 맛있는 밥차'가 공개된다.

제작진은 최근 진행된 '무한도전'에서 김수현에게 줄 선물을 위해 밥차를 준비했다. 제작진으로부터 밥차를 받기 위해 모인 멤버들은 박명수의 밥차 탈취 후 본격적으로 추격에 나섰다.

지난 '진실게임' 편에서 통제를 벗어난 거짓말의 연속으로 그림자 군단을 느꼈던 박명수는 이번에도 그림자들을 소환, 본인이 탄 진짜 밥차 외에 6대의 가짜 밥차를 능수능란하게 운영해 멤버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박명수의 지령을 받은 그림자들은 일사분란하게 흩어져 서울 곳곳에 숨어들었고 GPS의 정보만으로 밥차를 찾는 멤버

들은 밥차가 표시된 위치를 확인하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멤버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지난 2015년 '무도드림'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성사된 신병교육 훈련 특집에서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벌어지는 훈련과 일상

을 리얼하게 담아낼 예정이다. 지난 '무도드림' 편에서 '진짜 사나이' 제작팀의 박명수 섭외 실패에 아쉬움이 컸던 '무한도전' 제작진은 육군본부에 촬영요청 후 허가를 기다리던 중 지난달 30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허가가 결정되면서 '무한도전' 단독으로 특집을 진행하게 됐다.

aluemchang@news1.kr

'라스' 박준형, 박진영 폭로 "김태우, 정우성+류시원 닮았다고"

(서울=뉴스스타) 윤정미 기자 = g.o.d의 박준형이 김태우의 외모를 과대포장한 박진영의 과거 발언을 폭로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28일 MBC '라디오스타'에선 g.o.d 박준형, 김태우, 원타임 송백경, 신화 전진이 출연해 눈길을 모

았다. 이날 박준형은 데뷔 전 김태우를 멤버들에게 소개할 때 했던 박진영의 말이 과장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태우를 아직 못 본 상태에서 박진영이 말하기를, 키는 정우성이고 눈은 류시원, 소두에 긴 하

체를 가졌다고 했다. 그래서 멤버들은 잘생긴 사람이 올 줄 알았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박준형은 "그래서 태우를 처음 봤을 때 토할 뻔 했다"고 밝히며 폭소를 자아냈다.

galaxy98@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글와이프' 유쾌X미모 아내들의 달콤한 일탈



(서울=뉴스스타) 장수민 기자 = '싱글와이프'의 아내들이 각자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날 첫 출연한 정재희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육아로 청춘을 보내고 가진 우울증에 대해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연예인 친구 가희와 대만 여행을 떠난 정재희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아빠 친구 아들을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창렬은 아내를 위해 몰래 컵라면과 현금 봉투, 새로 산 여행옷 등을 싸워 감동을 자아냈다.

도쿄여행 2일차에 도전한 정재은은 남편 서현철이 부탁했던 목디스크용 스트레칭 기구를 사러 나섰다. 그는 인력거를 타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기사에게 계속해 한국어로 말을 걸며 '유창한 한국어'를 계속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정재은은 딸 은조 양을 위해 '토토로 도시락' 1일 클래스에 참여했다. 다 만든 도시락이 가까워서 못 먹겠다던 정재은은 정작 한 입 씹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며 감탄하면서 도시락을 깨끗하게 비워내 또 한번 웃음을 더했다.

코사무이로 떠난 전해진은 모닝 수영을 즐기며 액티비티한 모습을 드러냈다.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전해진의 일행에게 한 백인 남성이 다가왔고, 전해진은 어색함 없이 악수를 하며 인사해 스튜디오에 자리한 이천희의 표정이 급 어두워져 눈길을 끌었다.

jim928@news1.kr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아버지가 이상해 |
| 2 | KBS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 3 | KBS | 이름 없는 여자 |
| 4 | MBC | 당신은 너무합니다 |
| 5 | SBS | 언니는 살아있다 |
| 6 | KBS |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
| 7 | KBS | 쌈 마이웨이 |
| 8 | MBC | 도둑놈 도둑님 |
| 9 | SBS | 달콤한 원수 |
| 10 | MBC | 훈 오순남 |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싱글와이프 |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1 | 미정 |
|---|----|

'도둑놈' 지현우X서현 러브라인

(서울=뉴스스타) 장아름 기자 = MBC 주말드라마 '도둑놈 도둑님' (극본 손영목 차이영, 연출 오경훈 장준호)이 자체최고시청률을 달성했다. 12회에서는 '의적 J'로 변신한 장돌목(지현우 분)의 1인 3역에 빛나는 활약이 그려졌다. 장돌목은 흥일권(장광 분)의 천문그룹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집에 침입해 비리 장부와 그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붙이는 등 힘을 쏟았다.

돌목의 활약은 도둑놈에서 멈추지 않았다. 흥미애(서이숙 분)에게 접근하기 위해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여장에 도전했고 더 나아가 중년 변호사로 변신해 미애에게 호감을 얻으려 했다.

한편 강소주(서주현 분)와 한준희(김지훈 분)의 박의원에 대한 비리 수사는 '의적 J'가 훔친 장부를 얻게 되면서 순조롭게 이어 나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화영(임주은 분)은 한준희에게 찾아가 박의원의 변호사가 자신임을 밝혀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luemchang@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신영의 **세상 스케치**

60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인생은 문제투성이...

한 달 전쯤이었을 게다. 10여 년 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계시던 홍 목사님을 모시고 '행복하지 않기로 불가능한 일(Impossible not to be happy in Christ)'란 제목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었다. 언제나처럼 열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환한 홍 목사님은 여전히 밝고 맑아 보이신다. 세월마저도 그분을 비껴간 듯싶은 그런 말간 영혼의 성직자의 모습이다. 참으로 반가웠다. 참 많이도 보고 싶었던 분이다. 사람은 그런가 싶다. 늘 곁에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으면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새삼 또 깨달았다.

그래, 정말 그렇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생각(명상/묵상)과 마주해 보자.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의 기쁜 순간을 놓치는가 말이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 어렵고 버거운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생각을 한다. 활동 영역이 넓어지

면 넓어질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처럼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자유로움에서 멀어진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 아니던가.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어떻게 잘 풀 어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고 또한 각자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싶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작은 모임이 되었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된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답이 아닐까 싶다. 누구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뿐더러 더욱이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잠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기를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이다. 진정 그 어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

각 없이 불쑥 내뱉어놓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 그 의견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면 여러 사람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네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부족해서 인정 받고 싶은 마음에서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어떤 자리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한 느낌이었을 때, 감정이 다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네 삶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정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는 '갈등이 왜 생기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다. 때로는 모임 장소에서 특별하지 않은 대화 속에서도 어느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테지만 말이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항상 존 경심을 가지고 말하자.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주의 깊게 안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을 관찰할 때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실 가능성을 열라. 반박하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듣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갖게 하는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중단된다." 이렇듯, 어느 모임에서든 어느 회의에서든 '회의 원리(Holy Conferencing Principles)'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세상과의 만남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없다면 너무 밋밋해서 심심할지도 모를 인생이 아니던가.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리란 생각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와너무도 다른 그 무엇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 자신의 '존재의 자유'를 넉넉히 누릴 것이다. 다름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까닭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야생화 접시꽃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가 이번에 입각했다. 뉴스를 읽고 열핏 스치는 게 있었다. 죽은 시인의 사회. 그는 중학교 국어교사였다고 들었기 때문일 게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인詩人の 다른 시詩 첫 구절이다. 시처럼 시인은 흔들리면서도 굳세게 자랐다. 그리고 판서判書가 되었다. 그러니 시인에게 시인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정치인에게 시를 읽히라고 강조했는데 신임장관에게 시를 읽으라고 권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웬만한 시는 모두 읽었을 테고, 그 자신이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장관이 되었어도 시정詩情만큼은 고이 간직하기를 빈다.

시인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시인이라고 장관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저명시인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 되는데 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시집詩集이 무지 잘 팔린다고도 했다. 그런데 씩씩한 심사는 무슨 연고인지. 관찮은 시인 하나 읽은 듯한 박달감인가? 그 자리에 있

어야 할 야생화가 어느날 없어졌기 때문인가? 야생화를 좋아한다는 대통령이 시인도 데려가기 때문일 게다. 자의반 타의반 일 수도 있겠다. 우린 시인을 하나 잃었고 야생화 접시꽃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죽은 시인의 사회 되었는데, 그의 시집은 잘 팔려 나가겠다.

접시꽃은 야생화다. 요새 야생화도 옮겨 심는 다했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야생화는 웬지 어설피 애처롭다. 야생의 애잔한 아름다움이 덜하다는 말이다. 이식移植된 접시꽃 잘 자라기를 바란다. '접시꽃 당신' 도 시인이었던 그의 다른 시 제목이다.

장관으로 건투를 빈다. 접시꽃 위에 빗방울이 나린다.

1. 영문 원제목은 'Dead Poet Society' 이다. 한국어로 번역한 말이 더 친근하다.
2.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
3. 접시꽃 영어이름은 Hollyhock이다. 보스톤에도 피는 지 그건 모르겠다. 사진에선 동백같기도 한데, 진홍색 꽃잎은 요염해 보인다.

문제인 대통령이 측근들과 등산 중이었다. 등반길에 피어있던 야생화를 발견했다. 야생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대통령에게 옮겨 심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대답이다. '야생화는 야생일 적에 아름다움법.' 대답은 아름답다.

그대여 흘러흘러 부디 잘 가라
소리없이

그러나 오래오래 흐르는 강물을 따라
그댈 보내며
이제는 그대가 내 곁에서가 아니라
그대 자리에 있을 때
더욱 아름답다는 걸 안다.
(도종환, 그대 잘가라)

도종환 시인의 이야기이다. 국회의원이던 그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The Value Package includes: Rear-view camera, 8.2-inch touchscreen,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Free Phone System, Fog Lights

MSRP: \$14,200
 MSRP with destination: \$14,900
 MSRP with dealer fee: \$15,100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15,900

Stock #HQ1218A

Lease	Purchase	Finance
\$4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14,890 MSRP: \$15,100 Rebate: \$210 MSRP Discount: \$1,900	0% APR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only.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e Value Package includes: Rear-view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Free Phone System, Fog Lights

MSRP: \$20,825
 MSRP with destination: \$21,525
 MSRP with dealer fee: \$21,725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22,525

Stock #HQ1218B

Lease	Purchase	Finance
\$11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20,825 MSRP: \$21,525 Rebate: \$600 MSRP Discount: \$2,700	0.9% APR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only.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onata 2.4L

The Value Package includes: Rear-view camera, 18"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

MSRP: \$15,560
 MSRP with destination: \$16,260
 MSRP with dealer fee: \$16,460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17,260

Stock #HQ1218C

Lease	Purchase	Finance
\$12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15,560 MSRP: \$16,260 Rebate: \$700 MSRP Discount: \$2,000	

2017 Hyundai Tucson ECO

The Value Package includes: Blind Spot Monitor, Blind Spot Alert, Lane Departure Warning, Rearview Camera

MSRP: \$19,920
 MSRP with destination: \$20,620
 MSRP with dealer fee: \$20,820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21,620

Stock #HQ1218D

Lease	Purchase	Finance
\$13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19,920 MSRP: \$20,620 Rebate: \$700 MSRP Discount: \$1,800	0.5% APR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only.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onata Limited

The Value Package includes: Power Moonroof, Apple CarPlay/Android Auto, 17" alloy wheels

MSRP: \$17,580
 MSRP with destination: \$18,280
 MSRP with dealer fee: \$18,480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19,280

Stock #HQ11621

Lease	Purchase	Finance
\$14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17,580 MSRP: \$18,280 Rebate: \$700 MSRP Discount: \$3,100	1.9% APR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only. See dealer for details.

2017 Hyundai Santa Fe SE

The Value Package includes: Blind Spot Monitor, Blind Spot Alert, Lane Departure Warning, Rearview Camera

MSRP: \$27,765
 MSRP with destination: \$28,465
 MSRP with dealer fee: \$28,665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29,465

Stock #HQ1218E

Lease	Purchase	Finance
\$14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27,765 MSRP: \$28,465 Rebate: \$700 MSRP Discount: \$3,000	

2017 Hyundai Accent SE

The Value Package includes: Automatic, Sirius XM, Apple CarPlay/Android Auto, Bluetooth, 17" alloy wheels

MSRP: \$11,855
 MSRP with destination: \$12,555
 MSRP with dealer fee: \$12,755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13,555

Stock #HQ1218F

Lease	Purchase	Finance
\$15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11,855 MSRP: \$12,555 Rebate: \$700 MSRP Discount: \$2,300	0% APR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only. See dealer for details.

2017 Genesis G80 3.8

The Value Package includes: Premium 17" alloy wheels, leather interior, navigation, 17" alloy wheels

MSRP: \$39,965
 MSRP with destination: \$40,665
 MSRP with dealer fee: \$40,865
 MSRP with destination and dealer fee: \$41,665

Stock #HQ1218G

Lease	Purchase	Finance
\$259/mo. 36 months lease 10,000 miles per year \$1,000 down payment	\$39,965 MSRP: \$40,665 Rebate: \$700 MSRP Discount: \$5,000	1.9% APR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only. See dealer for details.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비즈니스의 약육강식

90년대에 유행했던 자기개발 책들 중 에서 가장 인상깊게 읽었던 내용은 ‘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 시켜라 ’ 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힘든 아 이디어이다.

아이가 수학은 아주 잘하는데 영어가 약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낸다. 수학은 잘하니까 특별히 따로 공부시키지 않는다.

아이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약한 영어 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더더욱 힘 들어 한다. 결국 영어는 아이에게 정말 싫어하는 과목이 된다. 그러다 보니 수 학도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진다.

반대로 세기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 인은 수학에만 능했다. 그리고 수학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결 국 다른 과목이 뒤떨어졌지만 수학 실력 이 탁월해서 스위스 기술대학에 특별로 입학할 수 있었다. 만일 아인슈타인이 오늘의 미국이나 한국에 태어났다면 대 학은 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힘들었 을지도 모른다.

비즈니스에도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

다. 그리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 을 최소화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 비 결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세일즈 매니저들의 공통점을 갤럽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성공한 매니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상위 20%의 세일즈에 이진트들과 보낸다고 했다. 상위 20% 가 전체매출의 80% 이상을 올리기 때문이 다. 이들에게 독려와 관심을 보일수록 회사의 성장은 보장되어있는 것이다.

반대로 실적이 저조한 매니저들은 자 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하위 50%에 쏟고 있었다. 하위 50%는 전체 매출의 10% 도 올리기 힘들다. 이들 하위 50%는 매 니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잘해 야 보통 정도의 실적을 올릴 것이다. 매 니저들이 실적이 저조한 에이전트들에 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위 20% 에이전 트들은 무관심과 냉대에 실망을 느끼고 점차 일에 의욕을 잃게 된다. 그리고 자 신들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회사로 직장 을 옮길 것이다.

결국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만일 자신이 상위 20%에 속하지 않는

다면 자신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직종 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신이 수학 을 잘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어를 사용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람들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을 싫 어하는 사람은 서비스업에 맞지가 않다 . 성공하지 못하는, 자신도 즐기지 못하 는 미래를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하루 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비즈니스도 사람도 자신의 강점을 찾 지 못하면 강한자가 약한자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그럼 잘하는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 는 누구일까? 비즈니스를 잘 하는 사람 이 부동산 세일즈도 잘 할수 있다. 결국 성공한 비즈니스 지도자가 부동산 세일 즈도 잘 할수 있다는 얘기다.

난 16년동안 한 회사에서 꾸준히 부동 산 세일즈를 했고 그 후에 내 회사를 오픈 했다. 여기서 잘 못하는 사람이 절대 로 다른 회사에 간다고 해서 잘하지 않 는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를때에는 항상

그 회사에 얼마나 계셨어요? 하고 물어 봐야 한다.

바쁜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회사를 옮 기 시간이 없다. 회사를 자주 옮기는 에 이전트들은 거래가 없어 다른데 가면 좀 나아질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꾸준히 한곳에서 노력하다 보면 그 댓가를 받는건 철칙이기 때문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85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1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중의 한명인 미실의 등장, 미실이 실세로서 화랑도와 정치 권에 모습을 드러낼 때가 바로 남편인 세종전 군이 화랑도의 수장 6세 풍월주가 되면서 부터 이다. 세종전군의 후비로 입궁하였지만 결 국 정비 율명을 퇴궁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 하였다. 율명은 아버지가 진종전군이고 어머니 는 지소이다. 진종은 형 원종(법흥왕)과 입종(지소의 남편, 진흥왕의 아버지)과 함께 지증왕 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소는 삼촌인 입종의 부인이었으며, 또 다른 삼촌인 진종의 딸도 생 산하였다. 그리고 그 딸을 자신의 또다른 남자 인 이사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종에게 결 혼시켰던 것이다. 율명의 미모 역시 미실에 못 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은 미실을 더 사랑하여 차비로 밀리면서 나중에는 궁궐을 나왔지만 후일 진흥왕의 명으로 율명은 세종의 차비로 서 궁에서 같이 살았다. 굴러들어온 돌이 밝힌 돌을 빼낸 전형적인 예이다. 이와 동시에 세종 이 사다함을 이어 6세 풍월주가 되면서 새로이 많은 낭도들을 선발 훈련하여 화랑도가 더욱 조직적으로 변성되었다. 여기에는 미실의 힘 이 컸다. 이렇게 미실의 손이 화랑도의 조직내 부까지 뻗치면서 화랑의 수장 풍월주를 ‘허 수아비’로 만들고 원화제도를 부활하여 스스

로 원화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색공은 남편 세종을 떠나 위로는 진흥왕부터 태자 등 의 왕족과, 또한 방탕한 색기도 발동하여 설원 랑(금진과 설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다함의 이 부동모 동생), 심지어 자신의 친동생인 미생에 이르기까지 사통하였다. 물론 사통들은 진흥 왕이나 남편 세종은 모르는 일들이었다. 또한 진흥왕 사후에는 대원신통의 종주인 진흥왕비 사도와 정략적으로 진지왕을 옹립하였다. 그 리고 진지왕이 자신의 ‘왕후거래’를 위반했 다는 이유로 그를 폐위하기도 하였다. 소지왕 때부터 지증왕과 법흥왕을 거쳐 당대 진흥왕 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라고 기록된 외할머니 옥진과 할머니 삼엽궁주 그 리고 삼엽의 어머니인 벽화의 혈통과 색기를 물려받은 미실은 근계일학같은 아름다운 미모 와 함께 영특한 여인으로 성장하였다. 더구나 어릴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된 색도는 당대의 왕과 왕족들에게 색공하는데 금상첨화였다. 그는 남편의 형(이부동모)인 진흥왕과 진흥왕 의 맏아들 동륜태자, 둘째아들 진지왕 그리고 손자인 진평왕에 이르기까지 3대의 왕과 귀족 들에게 색공을 하면서 대원신통의 인맥을 확 장하였으며 정계의 중심에 서서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둘렀다.

세종이 6세 풍월주가 되었을 무렵 태자 동륜 은 장성했다. 그래서 지소태후는 자신의 딸인 만호공주를 손자인 동륜태자와 혼인시키려고

했다. 지소는 진골정통의 대모이다. 지소의 의 도는 물론 ‘진골정통’으로 성골의 피를 이 으려고 하였다. 이에 미실의 이모인 사도왕후 는 ‘대원신통’으로 인맥(姻脈)을 이으려고 미 실에게 동륜과 상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후일 왕후로 삼겠노라고 밀지를 주었다. 그래서 미 실은 동륜과 상통하게 되었고 이를 모르고 있 던 진흥왕이 불려서 색공을 하게 했다. 음사라 면 할머니들에 의해서 어릴때부터 특별한 색 도의 비법을 전수받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잘 했던 미실은 그때부터 진흥왕의 총애를 독차 지 하였다. 진흥왕은 그를 왕후궁의 전주로 임 명하였다. 전주는 왕후와 같은 지위이다. 하지만 미실은 동륜의 처(왕후)가 되지 못하였고, 지소태후의 뜻대로 만호공주가 동륜태자와 결 혼하였다. 그리고 만호는 아들 셋을 낳았다. 첫 째가 신라의 제26대 진평왕이고, 둘째는 진정 갈문왕(김백반)이며 셋째는 진안갈문왕(김국 반)이다. 그리고 동륜은 왕좌에 오르지도 못하 고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피맛 폭을 풀려고 월담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개 죽음’을 당했다. 여기서 진평왕의 유명한 옥 대 이야기 한미디, 진평왕 즉위년인 579년에 천 사가 궁전 뜰에 내려와 상제上帝의 하사품인 길이가 10위쯤나 되고 마디가 62개나 되는 옥 대를 바쳤다. 왕은 이를 성제대聖帝帶라 부르 며 천지신령이나 종교에 제사를 지낼때 항상 착용하였다. 이것은 신라말까지 황통사의 ‘

구층탑’, ‘장륙존상’과 함께 신라3보로 전 해왔다. 신라가 망한뒤 937년 5월에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이 옥대를 바쳤다.

이어지는 화랑세기 6세 풍월주 세종편, [세종은 금지옥엽의 귀함이 있었지만, 능히 사다함공의 어루만짐의 도를 이어 낭도를 많이 뽑아 당幢을 이루었고, 도의에 힘써 상하에 두루 미쳤다. 미실이 실로 대내(왕궁)에 거하며 이끌어준 것이다. 그 때 동태자(동륜태자)가 이미 장성했다. 태후는 이에 만호공주를 짝 지어 진골정통眞骨正統을 잇고자 했다. 사도 왕후는 대원신통大元神統을 잇고자 하여 몰래 서로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은 좋은 아이이니, 태자와 더불어 친하여 아들 을 갖게 되면 곧 너를 후후로 삼을 것이다” 했 다. 미실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와 더불어 상통 하여 임신을 했다. (그런데) 대왕이 이를 알지 못하고 또한 미실을 들어오게 하여 색공으로 모시도록 했다. 미실은 음사를 잘하여 총애가 날로 중하여 왕후궁 전주에 발탁되었다. 그의 지위는 왕후와 같았다. 미실은 이에 사람을 시켜 세종이 밖에서 공을 세우도록 설득하였다. 세종은 이에 출정할 것을 구했는데 낭도들이 많이 따랐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HITRONS

happy FATHER'S day **안마의자 대세일**

이나다 안마의자는



치료기능이 더욱 강력해진 이나다 마사지 체어!

전신 마사지와 효과를 입증한 이나다안마의자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속 혈관을 자극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도 좋아 많은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마사지 체어입니다.

DREAMWAVE

48개월
\$194/월 + Tax
36개월 무이자



NEST

~~\$7,900~~
\$6,000
36개월 무이자



FLEX 3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Inada Dreamwave 또는 Panasonic MA73 일시불 구입시 **Hitrons Gift Card \$800 무료증정** (6월 30일까지)

파나소닉 안마의자는 **Panasonic**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 재현! 이중 '온열' 마사지의 새로운 경험!

파나소닉 안마의자는 마사지 전문가의 다양하고 정교한 손기술의 마사지 기법을 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8년간의 기술 노하우로 최고의 마사지 전문가의 필수적인 3가지 마사지 기법을 재현하였습니다.



EP 30007
~~\$4,700~~
\$3,500
36개월 무이자



기능이 한단계 UPGRADE된 2017년 파나소닉 MA 73
EP MA73
\$125/월 + Tax
60개월 무이자

미 최대 규모 안마의자 전시장

직접오셔서 최정단 마사지 체어 무료체험을 해 보세요!
단체 선물용 소형 안마기 (5개 이상 구입시) 최대 40% 할인
전문 기술자 상주료 (Part & Labor) 최대 7년 Full Warranty



INADA Panasonic FUJIIRYOKI Osaki INFINITY COZZIA

ORDER NOW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빌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201-417-5350
(크리야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빌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 201-417-535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201-417-5350 / 571-235-7900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보스턴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Coming Soon, July)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巫 (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主)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 마태복음 16:1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生命)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God) except through Me." - 요한복음 14:6.

리정호(59) 씨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최고급 관리를 지냈었다.

2014년까지 북한 노동당 39호실 최고급관리를 지냈고 2016년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가 미국의 소리 VOA(Voice of America) 방송국을 통해 2014년 장성택 처형 때의 살벌한 분위기를,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측의 논리 등을 전했다.

그는 특히 "지금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핵(核)에 대해 너무 단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며 "북한 지도부가 제재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최후의 선택으로 핵으로 남한(南韓)을 공격해서 남북 통일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이라 말했다.

북한의 '노동당 39호실' 은 국가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를 하는 핵심 기관이다.

리정호 씨는 '39호실' 산하 대흥중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 국장, 금강경제개발회사 이사장, 중국 다렌 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리정호 씨는 지난 30년간 북한 노동당 직속 중앙기관에서 사업했고 2007년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임을 받아 국방위원회 소속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망명 전에는 '39호실 대흥총회사 중국 다렌 주재 지사장' 으로 사업하다가 2014년 10월 한국에 망명, 정착했고 2016년 3월 미국에 망명한 것.

2002년에 북한의 최고훈장인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고 2004년에는 경제학 석사 학위도 받았었다.

리 씨가 망명한 동기는 2014년도에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

인 숙청과 처형이 시행 되면서 그들의 측근과 가족들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수천 명이 처형되는 무서운 분위기.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자식들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망명 충동이 커진 것.

나와 가족들은 그런 비극상황에서 피하고 싶었던 것.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처형과 숙청은 있었지만 김정은 때처럼 확실한행은 보지 못했다고 비교했다.

리정호 씨가 보는 중국은 "북한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음흉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南韓)을 자기 영향권에 끌어들여 고 확책하고 있다.

또 중국이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한국이나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닭 쫓던 개 지레' 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레드라인 (Redline)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에 북한 지도부도 중국의 전략과 딜레마를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방미(訪美)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방문한 뒤 백악관의 공식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 중 경호차량을 멈춰 세우고 교민들을 격려하자 교민들은 "문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 를 찾아 헌화와 함께 기념사를 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 북을 통해 "빠빠한 일정 탓에 문 대통령은 곧장 경제인

간담회장으로 출발해야 했지만 한 분 한 분 가능한 많은 교민과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가셨다" 고 전했다.

대통령 전용기가 28일 오후 2시 35분 미국 방문길에 기내에서 기자간담회 중 비행기가 난기류(亂氣流)를 만나 문 대통령이 수행 기자들 앞에 서서 브리핑 중이었다. 마이크를 잡고

통로에 선 참모진 10여명은 팔을 들어 기내 천정을 잡거나 의자를 잡았는데 "자리에 앉아 달라" 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주영훈 경호실장이 "규정상 앉아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만류했지만 문 대통령은 "1분만 더 하겠다" 고

"잠깐만요! 대통령이라도... 기내에선 기장의 말을 따르셔야죠" 긴급 총언이 나왔을 것. 난기류로 인한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한다. 항공업계에서 "원인 불명으로 항공기가 추락했을 경우, 난기류 때문인 경우가 많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기류는 위험하다. 문 대통령이 이 난기류 사고를 막을 기력이 없으면서 비행기장의 말을 경고를 안 들어?

지난 20일 파나마에서 미국 휴스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United Airline)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려 10명의 승객이 다쳤고 지난 18일엔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쿤밍으로 가던 동방항공 여객기 승객 20명이 난기류로 부상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 까닭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대통령이라도... 기내에선 기장(機長)의 말을 따르셔야죠!"

巫 무: 事無形以舞降神者 사무형이무강신자 = 무당 무. 이 '무당 무' 자는 글 자체 구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신자(信者)와의 관계로 단순한 표현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신분은 工(공)으로 ID가 명백하다.

이 I: | 匠 신장 = 장인 공: ① | : 象之數之 從 상지수지종: 섹대 세울 곤. ② 上下相通: 위(하늘) 아래(땅, 땅아래)로 통할 신: 쉽게 풀면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까지 서로 상통, 즉 아래 위로 통하는 | =匠: 職工 = 직공 장장. 匚: 器之方者 = 상자 방. 이 상자에 들어있는 斤: 權十六兩 권십륙양 - 근근. 여기서 ① 權: 권세 권 ② 十 열 십: 이 십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는 믿는 ID (신분, 身分):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十) and follow me.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find it. - 마태복음 16:24, 25.

예수님의 ID를 이와 같이 명백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God Father)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6 (이 칼럼의 주제를 다시 보시기를)

그런데 이 I이란 예수님의 ID로 끝나지 않는다. 靈(영혼 영)자에는 물을 비(雨)로 三位(삼위)의 말씀을 세 입구(口)로 함께 巫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아는 식구(食口)들" 을 靈으로 화합했다. 당신의 삶속에 巫를 그리고 있는지 꼭 살펴볼 일 !!!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26년 Auto body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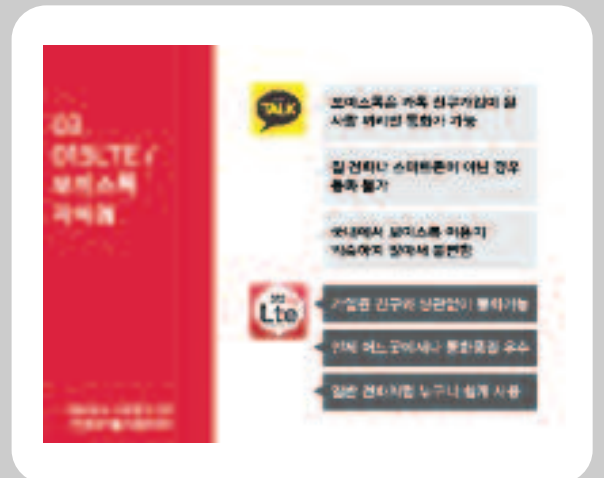
보스톤에서 한국전화번호를 사용하자!

엄마!
617 미국번호 아닌
013 한국번호로
전화해 ♥♥♥

분당: 5¢ (60원)
월 사용요금:
\$1.50 (1500원)



쉽고 편리한 국제전화!
013LTE



가입 문의:

617.955.9112

161 Harvard Ave. #13, Allston, MA 0213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92)

ETF(Exchange Traded Fund)란 무엇인가?

작년(2016)에 미국 투자자는 펀드매니저가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에서 \$358.8 Billion을 꺼내어 \$479.8 Billion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Year in Review: 2016 Saw Record Flows to Index Funds, WSJ, Dec. 29, 2016) *참고로 \$1 Billion은 1,000 Million이라는 큰돈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인 회사 주식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일반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 투자종목이 뮤추얼 펀드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최소 몇 개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 규모가 \$16 Trillion입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ETF 투자 규모는 \$3 Trillion입니다. 투자한 금액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ETF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뮤추얼 펀드의 성장률은 5.6%에 불과한데 ETF는

16.7%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ETF는 \$580 Billion에서 현재 \$3 Trillion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ETF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 ETF는 개별적인 회사 주식을 모아 놓은 투자종목으로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 ETF와 뮤추얼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개별적인 회사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하지만, ETF는 인덱스 펀드처럼 회사 크기 규모 등으로 설정된 회사에 투자합니다.

* ETF는 25년 전부터 주식시장에 나왔지만 최근 5년 동안 급성장을 했습니다. 투자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수익률이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TF는 은퇴계좌(Retirement Account)는 물론 세금을 낸 은행에 있는 돈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ETF 투자 경비는 뮤추얼 펀드와 비교해서 거의 1%가 적으며 인덱스 펀드

보다도 저렴합니다. 머니(Money) 재정 잡지에 의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는 1.33%, 인덱스 펀드는 0.74%, 그리고 ETF는 0.52%라고 합니다.

* ETF 투자 경비가 적은 이유는 회사 주식을 선정하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 주식선별가(Stock Analyst)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 ETF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매년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ETF는 사고파는 횟수(Trading)가 매우 적기에 발생하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 ETF는 투자 수익률이 뮤추얼 펀드보다 높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월스트리트 신문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덱스 펀드가 지난 15년 동안에도 수익률이 뮤추얼 펀드보다 높았다.

(Indexes Beat Stock Pickers Even Over 15 Years, April 13, 2017, WSJ)" 라는 내용입니다.

15년 동안 미국에서 큰 회사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성적이 좋은 뮤추얼 펀드는 단 8%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의 돈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면 무려 92%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개인 자산이나 저의 회사의 모든 고객의 자산도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투자를 도와주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ETF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하기에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 증여세 (2)

-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자금을 대주면 증여세 과세되나?

한국거주자인 할아버지가 아버지 대신 미국에서 공부하는 손자(미국영주권자임)의 학비를 지원해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식의 교육에 열정과 정성을 다하는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한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부모 대신 손자의 유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우뚱 할 것입니다. 이번주는 할아버지가 부담한 손자의 유학자금 이야기입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대한 비과세

현행 한국의 증여세법 체계로 보면 법에서 비과세나 면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증여는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래와 같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학자금 또는 장학금,
- 축하금 · 부의금, 혼수용품 등

이때 위에서 언급된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민법상 부양의무자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지급받고 이를 그용도에 맞게 쓰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소재하는 초·중·고·대학의 학비 등에도 해당돼 자녀의 유학자금(입학금이나 등록금등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면?

자,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자금을 대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 규정으로 본다면, 할아버지와 손자간에 부양의무자의 관계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등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일

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지원한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부양의무관계자간의 사회통념상 이루어진 지원이냐는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판단은 부모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 부모의 경제적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등을 대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자금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부모가 자녀의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부담한 유학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자금 등을 지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용자금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과세되나?

참고로 한국의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의 대학 학자금 용자금을 자녀가

대학 졸업 후 갚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한국의 비거주자이므로 비거주자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며, 증여자인 부모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

혹자는 위의 사례에서 학자금 용자금을 갚아주는 것이 생활비 내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했듯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받은 재산을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면 이는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6월 마지막주)

● **새 영주권 신청서 양식 (Revised form I-485)**

이민국은 6월 26일 영주권 신청서 양식인 form I-485 을 다시 한번 개정했습니다. 지난 1월의 개정 이후 올해만 두번째 개정입니다. 기존의 6쪽이던 양식이 18쪽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신 form G-325A 에 기재해야 했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들이 이번 새 양식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form G-325A 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늘어난 만큼 기재할 사항들도 늘어나고 세세해 졌으니 양식작성하실 때 많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는 8월25까지는 현행 양식과 개정된 양식 둘 다 쓸 수 있지만 8월25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양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과 같이 제출되는 신체 검사서에도 최근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양식의 준비와 추가 검사는 담당의사가 알아서 하게되지만 가급적 많은 영주권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에게 부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시민권 선서**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에 관한 전산 시스템을 보완 개정했습니다 (특히 메사추세츠를 담당하는 보스턴 이민국). 따라서, 2016년 12월부터 올 6월 사이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신 분들의 신청서 파일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오류는 인터뷰에서 최종 승인된 케이스에 대한 시민권 선서 통보 (Oath Notice) 가 신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위 기간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셨으나 아직까지 선서 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담당 변호사 또는 이민국에 꼭 문의하셔서 꼭 선서 통지서를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권 선서 즉시 신분이 미국 시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시민권 선서장소에 정부단체 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관 또는 정치 단체들이 새롭게 시민이 된 분들의 서명이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식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것과 정치적인 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단체라도 이러한 단체에 등록할 의무는 없으니 이러한 등록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말기 바랍니다.

● **Travel Ban**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국가 국적자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가 부분적으로 6월 29일 오전 10시 30

분 (판결로부터 72시간 후) 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9일부터 앞으로 몇주간은 공항 입국 인력들이 이 법안의 실행을 위해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법 실행에 따른 문제들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국심사 과정이 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연결편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칼럼 - [이민법]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경영, 비즈니스 종사자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 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는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 (Job Offer), 노동인증 (PERM), 노동허가서 (LC) 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족이민, 취업이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H-1B와 같은 취업 비자의 축소가 예상되자 NIW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박사후과정 (Post Doctor) 을 밟고 있는 지원자라든지 혹은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NIW가 과학분야의 고학력자들을 위한 과정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NIW는 분야의 제한이 없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비즈니스 분야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다수의 NIW 케이스 중 마케팅과 비즈니스 분야는 논문의 인용수나 학회 초대등을 강조하는 과학 분야와는 많이 다릅니다. 고객 A씨는 디자인 관련 학과 재학 중 근처의 애완견 놀이터나 애완견 관련 가게들, 애완견이 산책하기 좋은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아 애완견 산책이 쉽지 않은 미국 대도시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로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이어 고객 A씨는 다른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 모두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고객 A씨의 어플리케이션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는 사회 기여 측면과 A씨는 계속하여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미국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NIW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케이스는 즉각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 B씨는 스타트업 창업자였습니다. 올해 7월에 시작되는 벤처사업가들을 위한 체류 허가 제도를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었고 또한 영주권이 아닌 체류 허가는 역시 일시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NIW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이나 노동인증요구가 불필요하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민 변호사들이나 이민 정책 관련자들이 수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B씨가 이미 상당한 투자를 약속 받았으며 이 스타트업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NIW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도 크게 문제 없이 승인되었

습니다.

흔히 NIW는 과학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이민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NIW의 대부분의 승인 케이스는 과학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NIW는 과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분명 나와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마케팅 혹은 경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 NIW를 반드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송동호종합로펌 최강이민팀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같은 스펙,
다른 결과!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NIW 금주 성공 사례

- J. Lee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서울대 천문학과 학사 & 석사,
콜롬비아 천문학과 박사, 논문 5개, 인용 39개
- W. Choi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아주대 생물공학 학사 & 서울대 석사,
미시간 주립대 생물공학 박사, 논문 6개, 인용 123개
- J. Chang 고객 NIW 승인 케이스
-UC Irvine 생명공학 학사, Case Western 의대,
논문 2개, 인용 2건

NIW 해당 전공

• 컴퓨터/전자공학	• 의학/약학/간호학
• 생명공학	• 유전학/면역학
• 생화학/생의학	• 분자생물학
• 우주공학/천문학	• 치의학
• 환경공학	• 전염병학
• 재료공학	• 과학 교육
• 로봇공학	• 임상심리학/심리학
• 물리학/화학	• 경영학

※ 이 외에도 가능한 전공들이 많으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Q | 400 Kelby St., 7th Fl., Fort Lee, NJ 07024 •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CA • CT • DC • GA • MA • MD • NJ • NY • PA • V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 보스톤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 보스톤 남쪽 개인 우편서비스(프랜차이즈 아님) 연매상 \$550,000 100% 소유자 부재 중 경영, 높은 순수익
-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1명+직원5명
-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450,000+ 주 6일 영업
-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3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Session 1: 6/26 - 7/14, Session 2: 7/17- 8/4, Session 3: 8/7 - 8/25
- 2017년 여름방학 단기 집중 3주 프로그램
- 10여년이 넘는 보스톤 명성과 신뢰의 교육원
- 처음 준비하는 SAT 부터 AP 과정 및 경시대회 준비 (Math, Physics, Chem, Bio, AMC 및 각종 Olympiad)
- 30명 이상의 검증된 강사진으로 영어, 한국어로 수업 진행
- 합리적인 수강료. 모든 강좌는 선착순 등록이며 수강 납부시 등록 확정

	SSAT/WRITING	SAT/ACT
09:00-10:00	단어 암기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0:00-12:30	Reading Comprehension & Essay, SSAT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30-01:00	점심식사	점심식사
01:00-02:00	Writing Essay와 에세이 첨삭	SAT/ACT Practice Test
02:00-03:30	SSAT Practice Test	SAT/ACT Practice Test
03:30-04:30	단어 암기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04:30-05:00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저희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입학 및 가디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BEW 만의 오랜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사추세츠 지역 공립 학교에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 프로그램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여름 집중 3주 SSAT 프로그램은 Upper Level을 위한 준비로, Rising 8 학년 부터, SSAT 를 요구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AT 프로그램은 대학교를 지원하는 10, 11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수정예 수업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밀착 학업 관리로 3주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부모마음 점심을 별도로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